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The Channel of Blessing

당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서 문

필자가 섬기는 한동대학교에는 매우 특별한 학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자가 소속된 '글로벌 에디슨 아카데미(GEA: Global EDISON Academy)'입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 학부는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국제화 교육, 창의융합 교육, 정직성 교육, 공동체 교육, 국제 협력, 전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GEA는 선도적이고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 교육 및 고차원적인 글로벌 기업가 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의 함양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에디슨이란 발명가이자 세기적 앙트리프리너(Entrepreneur)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 1847-1931)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는 한편 E.D.I.S.O.N.의 각 두문자(頭文字)에 다음과 같은 교육 이념을 담아 실현하려고 합니다.

E : Education of Competent and Honest Global Leadership (국제화 교육)

D : Dynamic & Creative Cross-Disciplinary Academic Curricula (창의성 교육)

I : Integrity and Uprightness for Sound Character Building (정직성 교육)

S : Synergistic Outcome through Cooperation (공동체 교육)

O : Open and Borderless Global Educational Partnership (해외봉사훈련 교육)

N : Nurturing of the Whole Person for Peace and Prosperity (전인 교육)

또한 여기서 강조되는 기업가(Entrepreneur)란 원래 불어인데 '사이(between)'를 의미하는 'entre'와 '잡는 사람(taker)'을 뜻하는 'preneur'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 경제학자 리차드 캔틸런(Richard Cantillon)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고 영어 번역인 'undertaker'는 원래 장의사를 뜻합니다. 독일어로는 'Unternehmer' 그리고 네덜란드어로는 'ondernemer'라고 합니다. 나아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창조적 정신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가는 단지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기술, 나아가 영적인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쓰임 받는 리더들입니다. 가장 궁극적이면서도 최선의 기업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마침내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제가 최근 몇 년 간 기회 있을 때마다 발표했던 칼럼들을 모은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적 통찰 등을 나름대로 엮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에서 말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글들을 모아 보았으며 두 번째로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 관점에서 반성해 본 글들이며 마지막으로는 좀 더 현실적인 이슈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하늘나라의 살롬을 소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출판을 위해 한동대학교 학문과 신앙 연구소에서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독일, 벤스베르그(Bensberg)에서

저자

목 차

제 1 부: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혁신적 리모델링 (Innovative Remodeling).....	7
부퍼탈(Wuppertal)의 슈베베반(Schwebebahn)이 주는 교훈.....	9
교회와 크리스천 센터.....	11
기독 리더십 콩그레스와 뉘른베르크 선언.....	13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과 새 예루살렘.....	15
독일 교회 목회자가 된 한 조선족 형제.....	17
토요타의 리콜과 하나님의 리콜.....	19
터널 사회와 청지기적 삶.....	21
에피테제(Epithese).....	23

제 2 부: 역사와 신앙

독일의 화해 노력.....	26
키프로스와 한반도.....	28
발렌시안 그리스도인들.....	31
노르웨이의 비극과 그리스도인의 책임.....	34
폴란드의 비극과 소망.....	36
아이티 지진이 주는 경고.....	39
아이슬란드 화산재의 교훈.....	41
호화 유람선 침몰의 의미.....	43
파두(FADO).....	45

제 3 부: 킹덤 비전

제 1 회 차이스타(CHISTA)의 비전과 감동.....	48
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ETF): 유럽의 숨은 보화.....	50
교회의 제단 배치.....	52
유럽 교회의 연합운동(Jesus Unites).....	54
한민족 재외동포 세계선교의 비전.....	56
감사와 회개.....	58
잃어버린 강림절(Advent lost)	60
재난인가 진통인가?	62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 세계에.....	64

제 4 부: 현실과 세계관

세인트루이스의 종교다원주의.....	68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70
강남 스타일인가 킹덤 스타일인가?.....	72
인사말에 담긴 세계관.....	74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역.....	76
유럽의 이슬람: 도전과 대응.....	78
카니발(Carnival)과 사순절(Lent).....	81
희망봉.....	83
동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86

제 1 부: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혁신적 리모델링 (Innovative Remodeling)

얼마 전 저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림부르그(Limburg) 주의 헬렌(Heleen)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특별한 비즈니스를 하는 히어드 시모니스(Geerd Simonis)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의 사업을 한 마디로 C'magne(www.cmagne.com) 또는 ©-mill (www.cmill.com)이라고 하며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프로젝트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C는 중세 신성로마제국의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가 활동했던 지역, 문화(Culture), 창조적(Creative), 요리(Cooking), 상업적(Commercial), 컨퍼런스(Conference), 그리고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비타민 C를 제공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1: C'magne 항공사진

www.zachteg.nl/sites/zachteg.nl/files/images/09.jpg?1260796685



사진 2: C'magne 입구 광고
www.lhb.nu/Libraries/Projecten/ontwerp-bord_C-Mill.sflb.ashx



사진 3- 네덜란드의 히어드 시모니스는 버려진 구 필립스 공장을 구입해 리모델링하여 각종 기업들이 들어선 건물로 탈바꿈시켰다(왼쪽은 커피 포인트).

그 계획은 네덜란드에는 이미 건물이 충분하다는 객관적 근거 하에 새로운 건물들을 건축하기보다는 오래 되어 버려진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죽어가는 건물에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함으로 활력(vitality)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이 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실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 5년 간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 2011년 네덜란드 최고의 비즈니스 지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도 경기 및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오래 된 건물을 버리고 새로운 건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부동산 개발 관계 비즈니스를 해 온 시모니스 씨는 그것을 ‘낭비’라고 봅니다. 그 대신 다양하고 복잡한 건물들과 문제들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창조적 미래를 여는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일과 여가, 기업들 간의 협력,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은 지난 2007년 네덜란드 쿨지의 전자회사인 필립스가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생산하다 중단한 후 버려진 공장 건물들과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오래 된 건물들이지만 이곳을 완전히 리모델링하여 활기 넘치는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한 지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사진 1, 2). ‘공원에서의 삶(Life in the park)’라는 모토를 가지고 각 공간을 매우 창조적이고도 혁신적으로 기업들, 화랑들, 오피스텔, 교육, 문화, 사무실 및 레저를 겸비한 독특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것입니다(사진 3). 이러한 융통성 있는 특성과 다양성의 조화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다양한 창업의 기회와 시장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는 헬렌 시, 은행, 그리고 지역상공회의소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최근에

‘문화적 기업들의 지역(cultureel bedrijventerrein)’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시모니스 씨의 친절한 안내로 각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기업들(IT, 댄싱룸, 화랑, 회계법인 등)이 사무실 내지 작업 공간 등을 임대하여 각자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커피 포인트, 회의실 및 레스토랑에서 만나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쟁력을 강화하며 윈윈(win-win)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덜란드 국민들의 창의적인 저력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님의 몸 된 공동체로 각기 지체가 되어 서로 협력함으로 건물들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는 끊임없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적 리모델링을 통해(고후 5:17)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생명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영적 기업가(spiritual entrepreneur)들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부퍼탈의 슈베베반이 주는 교훈

독일의 중부 도시인 부퍼탈(Wuppertal)에는 세계 최초로 건설된 슈베베반(Schwebebahn)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철이 지상이나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려 가는 시스템입니다(사진 1). 그래서 흔들흔들 하며 가기 때문에 독일어로 슈베베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로팅 트램(Floating Tram), 또는 서스펜션 레일웨이(Suspension Railway)라고도 하며 그 공식명칭은 일렉트릭 엘리베이티드 레일웨이 장치(Electric Elevated Railway Installation), 오이겐 랑겐 시스템(Eugen Langen System)이라고 합니다.



사진 1- 독일의 공중에 매달려 가는

전동차 슈베베반: 우리도 이 슈베베반처럼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다.
www.blog.helladonna.com/wp-content/uploads/2011/05/wuppertal_schwebebahn_2005.jp



사진 2-슈베베를 제작한 독일 엔지니어였던 오이겐 랑엔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1/Eugen_Langen_Gedenktafel_in_Dresden.jpg

물론 지금은 독일의 도르트문트와 드레스덴에도 이와 유사한 전동차가 있고 일본에도 이러한 전동차가 있지만 부퍼탈의 전동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조인 셈입니다.

이 전동차는 오이겐 랑엔(Eugen Langen: 1833-1895, 사진 2)이라는 독일 엔지니어가 제작하였는데 이 분은 가솔린 개량 엔진을 개발하여 1867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부퍼탈의 공공 교통수단인 슈베베반은 1901년에 개통하여 지금까지 매년 2,500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13.3km로 이것을 이곳 부퍼탈이라는 도시에 건설한 이유는 이 도시가 부퍼라는 강의 골짜기 지형을 이용하여 전철을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물 양 옆으로 철제 기둥을 비스듬히 세워 공중에서 만나게 한 후 거기에 전철을 매달아 가게 한 것인데 그 높이는 평균 12m입니다. 한 사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100년이 넘었지만 이 전철은 큰 사고 없이 지금도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정비사가 볼트를 실수로 전철이 매달려 있는 철선에 두고 내려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다행히 아무런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슈베베반을 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함께 이 세상을 달려가는 전철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철은 지상, 또는 지하에 건설되어 있지만 이 슈베베반은 공중에 매달려 갑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말론적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골 3:1-2).

교회와 크리스천 센터

몇 년 전 제가 밴쿠버 써리(Surrey)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일이 되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캐나다 현지 교회를 빌려 사용하는 한인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그 교회의 새로 지은 예배당 구조였습니다(사진 1,2).



사진 1,2-다목적 용도로 설계된 밴쿠버의 한 교회당: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안에 의자를 놓고, 의자를 치우면 언제든지 농구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변모한다. 또한 무대가 앞쪽에 있어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할 수 있다.

ca.koreaportal.com/yp/files/small/0808271640132aef6246261111.jpg

postfiles2.naver.net/data2/2004/10/4/17/DSC03321-33ejlee.jpg?type=w3

안에서나 밖에서 보면 전혀 교회 건물 같지 않았고 마치 체육관 같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의자를 놓았지만 의자를 치우면 언제든지 농구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었습니다. 또한 무대가 앞쪽에 있어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할 수 있으며 예배 후 필요하다면 애찬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 예배당은 문자 그대로 다목적 용도로 설계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당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하고 마는 본당을 설계하기보다 예배당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복음적인 교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잔 운동에서도, 지난 2010년 케이프타운 선언문([Cape Town Commitment](#))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보다 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잔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분이었던 존 스토프(John Stott) 목사님께서는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New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이라는 책에서 교회가 현대의 중요한 이슈인 실업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공헌하기 위해 개신교 노동 윤리(근면, 정직,

청지기정신, 검약)를 강조하는 동시에 교회의 사역으로 놀이방, 유아원,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열린 청년 모임, 커피숍, 직업훈련 등의 사역을 통해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¹ 그러면서 전통적 교회 건물이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에 적합하지 않자 많은 교회들이 창의적인 설비들을 개발하여 다목적용 건물들로 개조하였으며 일부에서는 ‘교회’라는 전통적인 이름 대신 ‘기독교/크리스천 센터’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교회는 이름이 가스펠 포럼(Gospel Forum)입니다(사진 3). 월로우 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모델과 유사하게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접근법으로 총체적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곳에서는 어린이들 옷들을 모아 재활용 하는 시장을 열기도 합니다(사진 4).



사진 3-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접근법으로 총체적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포럼 교회 전경

wieland1.files.wordpress.com/2010/04/dscn3080.jpg



사진 4- 가스펠 포럼 교회에서 열린 바자회 모습

feuerbach.de/assets/feuerbach/images/news/Gospelforum_Kinderkleiderma.jpg

¹ 존 스토트, 정옥배 역,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분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05) pp. 268-269.

예수님께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마 9:17; 막 2:22; 눅 5:37-38).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균형 있게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끊임없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에 보다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 리더십 콩гр레스와 뉘른베르그 선언



리더십 콩гр레스

ekir.de/www/img/Kongress2009-1-g.jpg



기업들은 부스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업체를 홍보한다.

ekir.de/www/img/KcF09_Ausstellung_iBTK-g.jpg

사진 1- 독일에서 매 2년마다 열리는 기독

사진 2- 기독 리더십 콩гр레스가 열리는 동안 각 크리스천

독일에서는 매 2년마다 기독 리더십 콩그레스(www.christlicher-kongress.de)라는 귀한 모임이 개최됩니다(사진 1). 이 모임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가 유럽을 형성했다고 확신하지만 이전에 유효했던 것들이 오늘날 잊혀지고 소유 및 수입의 극대화 앞에 희생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또한 많은 세미나의 경우 리더십은 전문적이고 사무적인 방향만 제시하여 ‘윤리와 도덕’은 거의 설 자리가 없다고 보면서 경제, 정치, 교회 및 봉사(디아코니) 리더십의 오리엔테이션, 동기, 그리고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며 성경적 인간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사명을 완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각 단체와 개인들에게 공동 책임을 지는 행사로 동역하는 장을 제공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격려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콩그레스는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개최하는데 그 파트너들은 가령 기독 리더십 아카데미, 독일 복음주의기업가협의회, 가톨릭기업가,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 기독경제인협회, 라인란드 개신교회, 독일개신교회 영적갱신운동, 핸슬러출판사, 국제기독실업인협회, 요르단협회, 청년선교운동 등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대표하는 분은 복음주의 주간지인 이데아(idea)를 발행하는 훌스트 마르카르트(Horst Marquardt) 박사이며 행사 전체를 주관하는 곳은 이데아(www.idea.de)와 ‘템푸스’ 회사입니다. 특별히 이 콩그레스에는 각 크리스천 기업들이 자기들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부스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함께 정보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사진 2).

제 7회 기독 리더십 콩그레스가 지난 2011년 2월 독일의 남동부 뉘른베르그에서 개최되어 3,792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가치관이 분명한 리더십 발휘(Mit Werten in Fuehrung gehen)”였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 현지 신문인 <뉘른베르그 신문>은 “정직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표제를 달았으며 <타게스포스트지>는 “경제는 기독교적 가치를 필요로 한다”라고, <슈투트가르트 신문>은 “하나님과 함께 리드함: 기독교적 가치는 노동 시장에서 항상 큰 역할을 한다”고, <주일의 세계지>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인”이라는 표제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모임의 결과 뉘른베르그 선언이 작성, 발표되었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뉘른베르그에서 개최된 기독 리더십 콩그레스에 참여한 우리는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기준에 따라 살기로 노력한다.

한 사회는 독일의 헌법 서문에서 말하듯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질 때에만’ 생산적이며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 행위는 기독교적 가치를 필요로 하며 그 가치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은,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함과 정직, 근면과 신뢰성, 공정과 공평을 추구한다.
2. 부패와 사기, 불공평한 임금, 지나친 월급 및 퇴직금을 거부하며, 소유욕, 질투, 욕심 및 악의에 찬 비방도 거부한다.
3.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며 주일은 휴일로 지키면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4. 결혼, 가정 및 자녀가 사회의 기본임을 천명한다.
5. 동료 시민들을 격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앞으로 한국 및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기독인들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여 ‘하늘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과 새 예루살렘



사진- 한인 건축가 이은영 교수가 설계한 독일 남서부

중심 도시 슈투트가르트의 시립 도서관

www1.stuttgart.de/stadtbibliothek/bvs/uploads/departments/23.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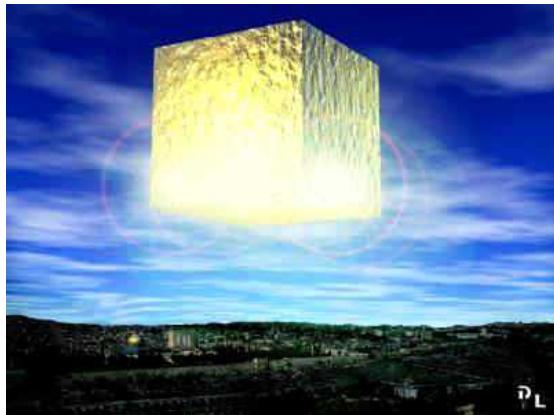


그림- 요한계시록 21 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성 그림: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 만 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이다.

www.tribulation.com/images/newj.jpg

지난 2011년 10월 독일 남서부 중심 도시인 슈투트가르트에 시립 도서관(Stadtbibliothek Stuttgart)이 준공되었습니다(사진). 총공사비 7,900 만 유로가 들어간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는 한인 건축가 이은영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한양대 건축학과 졸업 후, 독일 아헨 공대에서 디플롬 학위를 받고, O.M. 웅어스, J. 쉬어만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 1994년부터 쾰른에서 자신의 건축설계사무소 이 아키텍츠(Yi Architect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앞서 언급한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유럽 공개 현상설계 1등 당선) 외에도 최근 독일 하노버에 있는 니더작센 주의회 의사당 현상설계에도 1등으로 당선되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건물은 중앙역 뒤편 언덕에 있으며, 푸른 빛을 발하는 신비한 보석 같은, 과히 주변의 빌딩들을 압도할 정입방형의 건축물로, 지상으로 보이는 부분만 8층, 35미터 높이입니다. 건물의 꼭대기 층 외부, 뚜렷한 4 방향에는 한국어, 독어, 영어, 아랍어로 각각 ‘도서관’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건물의 핵이 되는 중심을 이 교수님은 ‘심장(Das Herz)’이라 명명했는데 연회색의 비교적 높은 벽으로 된 공간으로 건물 중심부에 있습니다. 일명 명상을 비롯한 생각을 모으는 상징적인 것으로 한가운데 바닥엔 언제나 흐르는 물이 정사각형으로 담겨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푸른 유리블록으로 밤엔 특히 신비한 푸른 조명을 받습니다. 건물의 내부는 흰색으로 보이는 연한 회색으로 일관했는데 심장 부위를 지나 계단을 따라 위로 오르다 보면 역시 심장으로 부터 시작된 중심부의 공간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런 효과를 ‘양파처럼 겹겹이 싸인 생각은 계단을 오르며 점점 중앙으로, 또는 하늘로 집중한다’라고 이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물 총면적이 20,180 평방미터인 이 도서관은 친환경 건축공법을 도입하여 4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하며 유럽 모든 국가 언어로 된 약 50 만 여 권의 책들을 소장하여 구석마다 전 계열 도서들이 있고 편안하고 현대적인 휴식공간들도 겸비했습니다. 본 건물은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Uuw4lCtPAd4>)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교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프로젝트를 10년 간 진행하면서 부인과 함께 많은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도서관은 앞으로 슈투트가르트 도시의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독일이 자랑하는 건축물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최고의 건축물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 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그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결한 도성이며 따라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 장 16 절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니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일만 이천 스타디온으로서 정육면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건축물이 두 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성막과 이 성막을 본떠 만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에 정육면체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가 완성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이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독일 교회 목회자가 된 한 조선족 형제



사진- 세계대전 전후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독일의 다클슈타트의 고난의 정원.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여 영성을 새롭게 하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www.kanaan.org/germany/kanaan/images/prayer-garden.jpg

지난 2011년 6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독일 중부 헤센 주의 다클슈타트(Darmstadt) 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로비전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유럽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모임에는 유럽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호주에서 오신 여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포럼이 열린 다클슈타트는 독일에서도 매우 특별한 도시입니다. 나찌가 집권한 이후 1933년 초반에 모든 유대인들 상점 문을 닫게 만든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1942년에는 이 도시에 살던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근처의 리비그슐레(Liebigschule)라는 캠프로 이송되었고 나중에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져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곳에서 많은 무기를 생산했기에 1944년 9월 11일 영국군의 집중 폭격으로 약 1만 1,000~1만 2,500명의 시민들이 죽었고 6만 6,000~7만 명이 집을 잃게 되었으며 도시 전체의 3/4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전후에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1947년 3월 30일 바실리아 슬링크(Basilea Schlink) 자매와 마르티리아 마다우스([Martyria Madauss](#)) 자매에 의해 개신교 공동체인 마리아 자매회(Evangelische Marienschwesternschaft)가 설립되면서 이 도시가 폭격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고백하고 1, 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화해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영성을 새롭게 하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고난의

정원(Leidensgarten)을 산책하면서(사진) 한국어로 안내해 주시는 암브로시아 자매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필자는 먼저 이 마리아 자매회를 방문한 후 유로 비전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매우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원래 조선족 형제로서 10년 전 독일에 유학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부르크에 도착하여 2년 간 독일어를 배우면서 그곳의 한 한인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 함께 왔던 세 형제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이 형제는 끝까지 남아 공부하였는데 마침 이곳 다름슈타트로 내려와 독일 오순절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하여 4년 간 공부하면서 이곳의 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적, 그리고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끝에 주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며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중, 북한 선교도 많이 생각했으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독일 오순절 교단에 속한 한 교회에서 실습하면서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아 실습이 끝난 후 놀랍게도 독일의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의 독일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로 임명을 받아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미혼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여 성도들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포럼에 참석하여 간증하자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의 한 귀한 열매인 것이지요(행 8:4, 11:19-21).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이신 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분이 그 목사님께 “과거에는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려 갔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는군요.”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현지 교회를 섬기시는 한인 목회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때 선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이 이제 선교지가 되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이제는 유럽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와서 도와달라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행 16:6-10).

도요타의 리콜과 하나님의 리콜

지난 2011년 초에 ‘도요타 리콜 사태’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속 폐달인데 타임지는 리콜 대상이 9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관련 차종까지 합하면 1,000만 대가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벌써 리콜 대상만 2010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수를 넘긴 것입니다.

그 결과 도요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주력 차종 대부분이 리콜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당 5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도요타 그룹은 그룹 운영 손실액으로 이미 3,500억 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도요타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령 로스앤젤레스 지방 법원에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도요타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이 낸 42쪽짜리 소장이 접수됐는데 이들은 “도요타가 가속시스템 디자인 상의 중대한 결함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주주들은 도요타 주식을 부풀려진 가격에 구매해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집중 제기될 전자장치 결함론도 계속 도요타를 괴롭힌 사안입니다. 어느 매릴랜드대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도요타 문제 핵심에는 복잡한 전자장치다”라면서 “하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아무도 도요타 차를 몰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요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뉴욕 타임스(NYT)>는 “도요타는 GM을 뛰어넘어 자동차 업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급속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에는 일본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했지만, 비용 절감과 생산 공정 신속화를 위해 부품 조달을 다변화하면서 품질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도요타는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부품 현지조달을 시도한 결과 품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품 공용화가 더해져 리콜사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 부품을 여러 차종에 같이 이용하면 부품 개발 기간 및 비용이 절약되는데 이번 도요타 경우에는 몇 개의 잘못된 제품이 수백 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친 욕심과 무리한 확장이 결국 이런 화를 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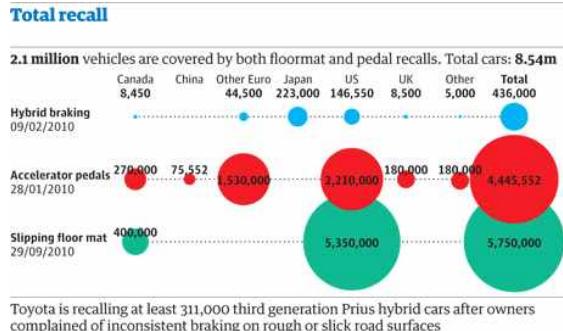


사진- 지난 2011년 초 ‘도요타 리콜 사태’가

확산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가속 페달인데 타임지는 리콜 대상이 9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관련 차종까지 합하면 1,000만 대가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static.guim.co.uk/sys-images/Guardian/Pix/maps_and_graphs/2010/2/9/1265742166485/Toyota-recall-graphic-002.jpg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큰 교훈을 줍니다. 즉 하나님의 리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27절에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외적인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깊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교만한 죄였습니다.

그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요타는 마침내 부품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엘 선지자는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외칩니다. 나아가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금식하고 애통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된 회개만이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징계를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14절; 갤 18:30).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십니다(욘 3:9). 그 결과 요엘서 2장 18-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고(18절), 재앙의 요인들을 제거하시며(19-20절), 죄악으로 황폐해진 땅을 복구하시고(21-25절), 풍요로움 속에서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23-27절; 신 28:1-14).

도요타는 이러한 사태를 정직하고도 지혜롭게 극복하여 2012년에는 다시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회사라는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주님의 빛 앞에 내어 놓고 모든 잘못된 언행을 회개함으로 다시금 ‘축복의 통로’로 회복되는 은총을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터널 사회와 청지기적 삶

최근 몇 년 간 세계 경제는 다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제일의 경제 대국인 미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부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말,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적자 감축을 위해 '백만장자 증세'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고 제안한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계급 투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유로화 도입 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불거진 재정 위기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재정 악화로 유럽 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재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기타 대부분의 유럽 연합 회원국들도 그 비율이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60%를 초과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도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들어 국제통화기금은 올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4.3%에서 4%로 내려 잡았으며 특히 유로존 17개국의 올 성장을 전망치는 2%에서 1.6%로, 내년 전망치는 1.7%에서 1.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올해 성장을 전망도 2.5%에서 1.5%로, 내년은 2.7%에서 1.8%로 크게 낮아져 미국과 유럽이 다시 경기후퇴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수천 억대의 로또 당첨자가 생기면서 로또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1- 네덜란드의 기독 경제학자 밥 하웃즈바르트 교수: 그는 요즘의

세계 경제상황을 ‘터널 사회(tunnel society)’로 비유한다. 일단 들어가면 다른 대안이 없고 끝까지 가야만 하는데 그 끝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을지, 낭떠러지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zingeving.net/Images/goudzwaard.jpg



사진 2- 독일의 유명한 기독 언론인 피터 한느의 책: 그는 이 책에서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aref.de/news/medien/2005/pics/buch_schluss-mit-lustig_peter-hahne.jpg

한국도 최근 몇 년 간 여러 저축은행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하면서 많은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주가는 폭락하고 물가는 더욱 오르면서 생활고가 심해져서 그런지 해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경제는 고삐 풀린 말처럼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독 경제학자인 밥 하웃즈바르트(Bob Goudzwaard) 교수(사진 1)는 이러한 상황을 ‘터널 사회(tunnel society)’로 비유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다른 대안이 없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터널 끝에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기다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여 발전시킨 학문과 기술, 그리고 진보와 성장을 절대 가치로 믿으며 발전하던 세계 경제에 이제 빨간 불이 켜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적 대안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 우리에게 주신 소위 ‘문화 명령(창 1:28; 2:15)’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피조계를 잘 다스리면서 동시에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웃즈바르트 교수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경제는 더 이상 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돌봄의 경제(economy of care)’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하고 잉여 가치는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기독 언론인인 피터 한느(Peter Hahne)씨도(사진 2)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Schluss mit lustig!: Das Ende der Spaßgesellschaft(파욕은 이제 그만: 즐기는 사회의 종말)’에서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고 겸소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128편 1-2절은 교훈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히 노력하여 그 대가를 감사히 누리며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에피테제(Epithese)



사진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얼굴의 일부가 손상된 환자들에게 실리콘 등의 재료를 사용해 에피테제라고 하는 인조 부품으로 재생시켜 준다.

www.choi-epithetik.com/images/ohrimpl.jpg



사진 2- 에피테제 치료

이전과 이후의 모습: 환자들은 에피테제를 한 후 얼굴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말한다.

www.choi-epithetik.com/images/augeimpl.jpg

필자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섬기던 분 중에 매우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직업을 독일어로 에피테티커(Epithetiker)라고 하며 하시는 일은 에피테틱(Epithetik)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인 에피테시스(epithesis)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naplastology, 한글로는 ‘안면보철’로 생소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즉,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얼굴의 일부를 손상한 환자들에게 실리콘 등의 재료를 사용해 에피테제라고 하는 인조 부품으로 재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 하나 없는 환자의 경우 외과 수술을 통해 그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후 환자 얼굴의 사진을 찍고 수치를 채어 인조 눈과 주변의 피부 및 눈썹까지 만든 후 그 뒷부분에 자석을 넣어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질을 한 후 안경까지 씌워주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자의 피부 색깔까지 일치시키고 눈썹까지 심는 기술은 거의 예술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환자들이 이 에피테제를 한 후 단지 얼굴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런 모습으로 도저히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자아상(self-image)도 심히 손상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도 이제야 사람 사는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얼굴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회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최창학 장로님이라는 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광부로 오셨지만 3년 계약이 끝난 후 다른 직장을 다니시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마흔이 넘어 치과 기공학교를 다니셨는데 마침 그때 일하던 회사가 이 에피테제에 대한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자 이 분이 한번 도전해 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달 간 씨름한 끝에 실리콘으로 인조 얼굴을 주문 받은 사진과 거의 완벽하게 재생해 내었던 것입니다. 마치 브사렐과 오플리압이 정교한 기술로 성막을 만들었듯이 이 분의 손 기술이 위낙 뛰어나 독일 및 유럽에서도 인정하는 에피테티커가 되셨고 개인 클리닉을 개원하여 일하고 있습니다(www.choi-epithetik.com). 그래서 독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두 번이나 취재했고 한국의 MBC에서도 독일까지 와서 취재하여 방영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환자들에게 영적, 육적인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는 진정한 앙트르프러너(entrepreneur)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및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진정한 에피테제이며 주님은 가장 진정한 에피테티커이십니다.

제 2 부: 역사와 신앙

진정한 화해를 위한 독일의 노력

화해는 그리스어로 katallage(reconciliation)이고 동사로는 katallasso(to reconcile)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 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reconciliation 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시 만난다’는 뜻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속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화해를 독일어로는 Versöhnung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Sühne 인데 이것은 바로 속죄(atonemen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생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후 5:19 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하지요. 21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다섯 번만 나오지만(롬 5:10-11, 11:15, 고후 5:18-20, 액 2:14-17 및 골 1:19-22) 사실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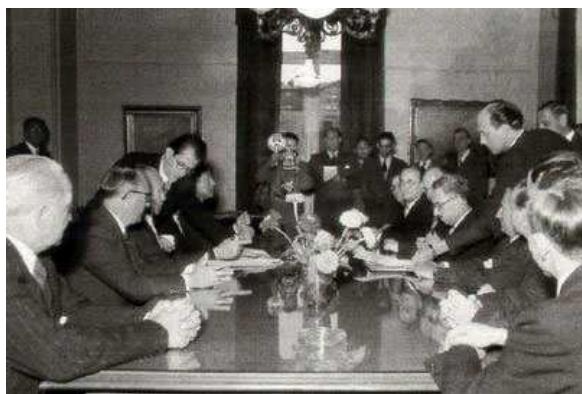


사진- 이스라엘과 서독 간의 보상협정 모습: 이

법안의 시행으로 당시 30 억 마르크라는 거금을 유대인에게 14년에 걸쳐 지불했다.

www.dra.de/online/hinweisdienste/wort/2002/bilder/wiedergutmachung.jpg

독일에서도 2차 대전이 끝난 후 화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로타르 크레이식(Lothar Kreyssig)이라고 하는 변호사에 의해 주도된 이 운동은 화해 및 평화봉사단(ASF: 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이라고 하는데 독일 개신교회가 1958년에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양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여러 나라에 가서 봉사하는 제도였습니다. 매년 약 1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독일에 의해 고통 받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여 봉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전후에 기독교 민주당(CDU)을 창설하여 초대 수상을 지내면서 라인강의 경제 기적을 일으킨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도 진정한 화해자였습니다. 이 분이 1951년 9월 서독 국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즉 서독 정부는 홀로코스트로 사망하거나 고통당한 유대인들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1년 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서독 간의 보상협정(The Reparations Agreement between Israel and West Germany, Wiedergutmachungsabkommen)이라고 합니다(사진). 1년 후 이 법이 시행되어 당시 독일 마르크로 30억 마르크라는 거금을 14년에 걸쳐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회간접 자본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정부의 국고 수입 중 1956년에는 서독 정부가 제공한 자본이 전체 수입에서 87.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동독도 폴란드와 소련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서독 정부에서 이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세운 법안을 BEG(Bundesentschädigungsgesetz, Federal Compensation Law)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1980년 중반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 계속 실행되었는데 심지어 1941년에 중립국이었지만 폭격을 당한 아일랜드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말까지 독일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총액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66조 640억 유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에 통일의 축복을 주신 것은 이렇게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 교회 중에 ‘화해 교회(Versöhnungskirche)’라는 이름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신학 중에 ‘화해의 신학’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 안아주고 용서하며 영접하신 아버지, 큰 아들이 투정을 부리고 시기해도 그를 품고 사랑으로 설득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의 본을 봅니다. 집사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던 주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에 진정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프로스와 한반도

몇 년 전 브뤼셀에 있는 유럽 의회에서는 특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에서의 종교적 자유와 성지들(Religious Freedom and Holy Sites in the Republic of Cyprus)”이라는 주제였는데, 사실 남키프로스의 정교회 지도자들이 북키프로스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터키 정부의 만행을 폭로하는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키프로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원래 그리스어 명칭이며 터키어로는 크브르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한글로는 구브로라고 합니다. 동부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로,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과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그리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해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960년에 독립하여 1961년에 영연방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매우 선진적인 경제 수준을 보여 2004년 5월 1일에 유럽 연합의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사진 1- 한반도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키프로스

www.nationsonline.org/maps/cyprus_map.jpg



사진 2- 키프로스의 바나바 기념교회: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지(행 13 장)가 바로 키프로스의 살라미였는데 현재 지명은 파마구스타(Famagusta)이다(행 13:5).

cfs5.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RUajRAZnM1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YvNjI4LmpwZy50aHVtYg==&filename=628.jpg

하지만 1974년 그리스계와 터키계 키프로스인 사이에 내전(1963-1974)이 끝나면서 키프로스 섬을 그리스에 병합하고자 했던 그리스계 민족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시도하자 터키가 키프로스를 침공하여 섬의 북부 지역 37%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키프로스 북부에 터키계 키프로스의 분리 국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키프로스는 현재 한반도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사진 1).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키프로스 공화국은 법적으로는 섬 전체 및 영국에 할당된 일부 군사 기지를 제외한 모든 해역에 주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남부로 섬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미승인 국가**인 북 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지배하고 있고, 터키 정부만 승인하는 국가입니다. 나머지 영국 군사 기지가 3%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었고(사 23:1, 12; 렘 2:10;겔 27:6) 신약에서는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그가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지역으로 초대 기독교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이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이 키프로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이 키프로스의 살라미인데 현재 지명은 파마구스타(Famagusta)입니다(행 13:5). 이곳에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사진 2). 나아가 라나카에는 나사로 무덤교회가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는 키프로스로 건너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세기경에 아름다운 나사로 기념 교회를 지어 지금까지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출처] 구브로(키프로스;Cyprus) - 바나바의 고향, 사도 바울의 제 1 차 전도여행지 | 작성자 바다사랑
해송

그런데 현재 키프로스의 문제는 단지 분단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을 장악한 터키 정부가 그동안 이곳에 남아 있던 대부분의 기독교 문화유산들을 훼손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슬람을 표방하는 북부의 터키 정부는 그동안 이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 건물들을 모스크로 바꾸었고 그 내부에 장식된 아름답고 소중한 성화 모자이크 등 수많은 유물들을 뛴헨 등지에서 열리는 세계 성화, 성물 시장에 팔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 지역에 남아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남쪽이나 다른 나라도 떠나 지금은 300여 명밖에 남아 있지 않고 이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 키프로스는 유럽에서 말타, 루마니아, 그리스 및 폴란드와 더불어 가장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가령 초대 대통령은 마카리오스 3세로 원래 정교회 대주교였습니다. 동시에 덴마크, 그리스, 말타 및 영국과 함께 국가 교회(정교회)를 가진 유럽의 다섯 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교회의 그리스계가 78%인데 키프로스 정교회는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나 아테네의 그리스 정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대주교가 중심인 키프로스 정교회로 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터키계 모슬лем이 18%이며 그 외 4%는 주후 4세기경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론(Maron)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마로나이트(Maronite) 교회를 포함한 가톨릭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성공회 및 복음적인 개신교회,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과 바하이 교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따라서 모슬렘들도 정부로부터 공평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키프로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조국의 비극과 비슷한 점이 많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와 같이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키프로스, 비록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 분단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거의 모든 교회당이 파괴된 북한의 모습과 너무 유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의회의 이전 의장이었던 한스 푸터링(Hans G. Pöttering) 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함께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아랍어, 터키어,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위성을 사용하여 선교하는 SAT7(www.sat7.org)이라고 하는 방송국이 중심 도시인 니코시아(Nicosia)에 있을 정도로 복음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이 북키프로스에도 신앙의 자유와 교회가 회복되어 초대 교회와 같이 다시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발덴시안 그리스도인들

몇 년 전 여름 저희 가족은 이태리 북서부에서 며칠 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지인 토리노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는 토레 펠리스(Torre Pelicce)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곳은 종교개혁 시대를 전후로 개신교도들인 발덴시안 크리스천들이 펁박을 피해 신앙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이 발덴시안이라는 명칭은 빼에르 발데스(Pierre Waldo/Valdes)라고 하는 지도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분은 원래 12 세기에 프랑스 리옹 출신의 유명한 부자 상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후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영적인 운동은 점점 커져갔고 나중에는 독일에서 일어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칼빈의 영향을 받아 이태리 지역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 분들이 알프스 산 속에서 펁박을 피해 신앙생활 하던 곳들을 특별히 발덴시안들의 골짜기(Valley of the Waldesians)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에는 그들이 성경을 불어로 번역한 것을 기념한 언약의 탑이 있습니다. 이곳을 샨포란(Chanforan: 사진 1)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1532년에 발덴시안 교회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총회에서 발덴시안 교회는 제네바의 칼빈이 주도하던 종교개혁에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발덴시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불어를 했기 때문에 최초로 성경을 불어로 번역했습니다. 동시에 12 세기부터 내려오던 신양고백서를 더욱 다듬어 17 조로 만든 신양 고백서를 이곳에서 선포하였고 이 문서는 지금까지도 발덴시안 교회의 신양적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덴시안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1686년에 다시 이곳에 옵니다. 그 후 낭뜨 칙령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가 다시 빅토르 아마데우스 2세(Victor Amadeus II)의 칙령에 의해 철회가 되면서 박해를 받게 되자 엔리코 아르노(Enrico Arnaud)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이곳에 모여 비장한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스위스에서 온 개신교도들도 함께 모였는데 그들은 모두 눈물과 간구로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을 떠나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신양을 지키겠다고 결단을 내리며 주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후 400년이 지난 1932년에 파올로 파세토(Paolo Paschetto)라는 분의 디자인으로 이 탑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순례자들이 이 돌탑을 보며 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성경과 믿음으로, 어떤 박해가 와도 신양을 지킬 것을 서약한 중심을 기억하며 감동 받고 있습니다.



사진 1-1932년 파올로 파세세토가 디자인 한 언약의 탑,

산포란: 순례자들은 이 돌탑을 보며 오직 성경과 믿음으로 어떤 박해가 와도 신양을 지킬 것을 서약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감동을 받는다.

farm4.static.flickr.com/3527/3792536016_8db9bfb974.jpg



사진 2-발렌시아 교회의 로고: 촛불을 둘러싼 일곱 개의 별,

표어: 어두움에서 빛이 비친다

palmbach.org/waldenserweg/gifs.wappen/Wappen.%20Waldenser.lucet.jpg



사진 3-발렌시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프라 델 토르노’ 골짜기

www.montagna.tv/cms/wp-content/uploads/2012/06/Pra-del-Torno-Photo-courtesy-tovieira.com_.jpg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귀에이자 드 라 타나(Gueiza 'D La Tana)라고 하는 자연 동굴이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동굴을 들어가려면 납작 엎드려야만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 아주 작은 곳이었지만 몇 군데 위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굴에서 2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렌시안 교회의 로고는 촛불을 들러싼 일곱 개의 별이며 표어는 ‘어두움에서 빛이 비친다(Lux lucet in tenebris: 사진 2)’입니다.

발렌시안 성도들이 신앙 생활했던 프라 델 토르노(Pra del Torno: 사진 3)라고 하는 다른 골짜기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중세시대부터 목회자를 배출하던 신학교 건물(College of the Barba)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분이 얼마나 친절히 안내해 주던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분이 신학교 건물을 보여 주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지하실은 외양간으로 사용했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장면을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위층은 강의실이었는데 중간에 제단과 같은 돌이 있었고 그 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학생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교재는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추운 겨울에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였고 대부분 복음서 두세 개는 거의 암송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땅감마저 너무 귀해 겨울에 땅 나무도 쉽게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추울 때에는 동물들과 함께 잤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방은 간단한 부엌이었고 그 위에 침실이 있었습니다. 졸업하면 이들은 생명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니면 순교를 당할 때까지 주님께 충성했다고 합니다.

이 발렌시안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태리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미국과 남미 등 전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에는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전국 주요 도시에 있어 모든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이 머물던 또래 펠리체 게스트하우스(www.foresteriatorre.org)도 이 발렌시안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며 그 옆에는 교회 종회 건물, 고등학교, 박물관,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당이 함께 있어 방문할 수 있고,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이곳에서 총회가 개최됩니다.

발렌시안 성도들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치하, 그리고 공산군들에게 의해 받았던 박해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몇 세기 동안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켜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비극과 그리스도인의 책임

지난 2011년 7월 22일 북구의 가장 평화로운 복지국가 중 하나인 노르웨이에서 하루 사이에 두 번의 테러를 일으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전세계를 다시금 경악하게 했습니다. 범인인 안더스 브레이비크(Anders Breivik)가 범행 약 두 시간 전에 인터넷에 발표한, 1,518 페이지나 되는 ‘2083: 유럽 독립선언문’에 보면 그는 유럽 각국이 극우 보수 정권으로 정권을 교체, 무슬림 이민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 이민자들이 유럽을 파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들어볼 때 그는 극단적이고 극우주의적인 민족주의자로서 현재 노르웨이 정권을 잡은 노동당 연립정권이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그 불만을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표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여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를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 그는 전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언문에서 자신은 결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며 종교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프리메이슨 신봉자라고 말하면서 노르웨이에 있는 이민자들을 증오하고 무슬림들을 몰아내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태는 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진-테러의 주범 안더스 브레이비크: 극단적이고 극우주의적인 민족주의자로서 노르웨이의 노동당 연립정권의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여 테러를 일으켰다.

www.baltische-rundschau.eu/wp-content/uploads/2012/08/9900jnhg.jpg

유럽은 전통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가난 등의 이유로 주로 미주 대륙으로 이민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저조한 출산율과 더불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들을 외부에서 조달하였고 이에 따른 많은 이민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유럽 대륙은 미국 못지않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연합 지역에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통합(integration)입니다. 즉 모든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통합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 독일의 자유민주당(FDP) 당수로 선임된 필립 뢰슬러(Philip Roessler)는 약관 39 세의 베트남 입양아 출신입니다. 하지만 독일 부모 아래 성장하여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로 활동하다가 30 대 중반에 보건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독일의 정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독일의 이민정책을 보여 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노르웨이에서의 대량 살상 사건 이후 노르웨이 국민들은 다시 교회로 모여 들고 있습니다. 오늘로 돔교회에서 거행된 추모예배에서 엔스 스톰튼베르그(Jens Stoltenberg) 수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democracy)와 개방성(openness), 그리고 인간성(humanity)입니다.”²

전국에서 모인 추모객들은 성경 말씀과 음악, 그리고 촛불을 통해 서로 안아주며 위로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하콘(Haakon)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거리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³

수십 만의 장미 꽃송이들이 드려졌고 희생자 추모 카드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미움이나 복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위기의 순간에 유럽의 교회는 영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유럽 교회는 이제 다시 재복음화 해야 할 정도로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주목할 현상은 유럽 내 이민자 교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유럽으로 몰려오는 이민자들을 섬기는 현지 교회의 사역도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 KIT(Kirkernes Integrations Tjeneste: Churches Integration Ministry)라고 하는 단체는 덴마크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공항에서부터 정착할 때까지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나누고 이민교회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할 때 국내의 사회적 갈등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해외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현지 교회 및 현지의 다양한 교회들과 사랑으로 동역할 때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진정한 공헌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² Idea Spektrum (독일의 복음주의적 주간지) 2011년 8월 4일자 (30/31호), p. 44.

³ Ibid.

폴란드의 비극과 소망

지난 2010년 4월 10일(토) 러시아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사고로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부부 등 폴란드 지도급 인사 96명이 사망했습니다.(사진 1) 이 비행기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슈마이진스키 하원 부의장, 국가안보국장, 군참모 총장, 육해공군 사령관 등 폴란드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타고 있었습니다. 이 참사로 폴란드 전국은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 1- 폴란드 비행기 추락사고현장

img.timeinc.net/time/daily/2010/1004/360_poland_crash_0410.jpg



사진 2-희생자 추모 미사

msnbcmedia.msn.com/j/MSNBC/Components/Photo/_new/pb-120410-polish-crash-anniversary-js-1.photoblog900.jpg

폴란드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인 동시에 애국심이 가장 강한 이들은 70년 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4월, 모스크바 서남쪽 카틴에 자리잡은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던 4,000여 명의 폴란드인들이 참살 당한 현장의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카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대부분 폴란드의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만행과는 달리 이 ‘카틴의 만행 사건’은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폴란드가 2차 대전 이후 계속해서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폴란드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상가상으로 카틴의 비극보다 더 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사회는 큰 혼란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 국민들이 이러한 충격과 슬픔을 차분하면서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미국 하버드대의 스티븐 월트 국제 정치학 교수는 지난 4월 12일 외교 전문지 ‘포린 팔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그들은 “한 개인의 리더십이나 유일 정당의 억제되지 않은 권위에 의해 국가의 안정이 좌우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대통령과 고위인사들의 갑작스런 사망에도 폴란드 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영속성을 가능케 하는 정통성 있는 법과 제도의 체계에 따라 움직여왔다는 것입니다. 월트 교수는 폴란드와 다른 경우로 이라크를 예로 들면서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고 집권당이 해체되자 국가 기강이 흔들리면서 치열한 종파 분쟁이 일어났음을 지적했습니다. 후세인의 뜻이 곧 나라의 법이었다가 그가 제거되자 그 공백을 메울 정통성 있는 법과 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깊은 곳에 그 기본 동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기독 신앙, 그 중에서도 가톨릭이 강한 나라로서 국민들의 경건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유럽에서 가장 신앙이 강한 나라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사진 2) 필자가 오래 전 폴란드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크라코프(Krakow)에 갔을 때 2차 대전 당시 가장 큰 비극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강제 노동 수용소와 함께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의 고향인 작은 마을 바도비체(Wadowice)에도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지만 반면에 바도비체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마침 그 동네 성당에서 미사가 드려지고 있어 들어가 보았는데 집전하는 신부님과 성도들의 예배 자세에 진지한 경건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곳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고 지금도 전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민의 94%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89.8%가 가톨릭이고 나머지가 동방정교(약 50만 명), 개신교도들(15만 명)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약 12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신자이든 아니든 간에 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있으며 폴란드의 정신적 유산이자 문화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1989년부터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교회의 영향으로 심지어 공교육에도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72%의 국민들이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폴란드의 가장 큰 개신교회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개신교회(The Evangelical Church of Augsburg Confession)입니다. 이 교회도 제 2차 대전시에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으나 독일 교회의 지원과 자체적인 노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거한 레흐 카진스키 대통령도 가톨릭이지만 폴란드 역사상 최초로 지난 2008년 10월 12일에 시에진(Cieszyn)에 있는 개신교회인 예수교회를 대통령 자격으로 공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개신교인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수상을 지낸 후, 2009년부터 독일의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유럽 의회 의장을 지낸 한스 게르트 페터링(Hans-Gert Pöttering)의 후임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저지 부체(Jerzy Buzek) 의장입니다. 비록 폴란드가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러한 신앙의 힘이 살아 있기에, 간혹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국난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해 나갈 소망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 초기에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와 사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의 조국과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티 지진이 주는 경고

지난 2010년 1월 12일과 20일 아이티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몇 주간 이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재산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나라를 돋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6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생존자들이 구조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주변의 가족들도 눈물로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방영될 때, 그리고 특별히 지진으로 발생한 고아들을 입양하는 벨기에와 프랑스 양부모들이 공항에서 아기들을 만나 감격하며 안아주는 장면들이 나올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필자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특별 구제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큰 탑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져 18명이 죽었지만 이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생명을 잃은 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것 아닙니다.



사진- 2010년 1월, 2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아이티

지진 참사로 폐허처럼 변한 한 마을 모습

www.cuba-solidarity.org.uk/images/news/haitiearthquake.jpg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 지진이 납니다?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진이 반드시 가난한 나라에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지질학적인 원인이 우선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상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지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지진이 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산기슭에 세웠습니다. 그 때에 시내 산에는 온통 연기가 자욱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도 무서워 떨린다”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엄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욥 9:6; 사 29:6; 램 10:10; 갤 3:12).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진은 종말의 징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마 24:7).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마 27:54) 그것을 보고 로마 백부장 및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정신이 나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진을 일으켜 감옥의 터가 흔들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꼬가 풀렸고(행 16:26) 그 간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를 인간이 막을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나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학 2:21-23).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12:26-27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 남아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하늘과 땅은 언젠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계 21:1). 그러므로 천지를 뒤흔드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여러 환상들을 통해 보았습니다(계 6:12-17; 8:5; 11; 16). 마지막 때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인간들이 만든 모든 바벨탑과 바벨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갓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unshakable Kingdom of God)’입니다. 히브리서 12 장 28 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나라를 축복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히브리서 12 장 22-24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 나라에 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재의 교훈

지난 2010년 몇 달 간 유럽의 하늘은 계속해서 아이슬란드 화산재로 항공기의 취항이 금지되었습니다. 여러 항공사들이 초유의 재정 적자 사태에 직면했으며 수백 만 명의 여행객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오직 화산재가 빨리 제거되기만 기다렸습니다. 저도 그 해 4월 말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도 예약하고 회비도 송금했으며 교회에 광고까지 했지만 결국 항로는 차단되었고 세미나가 취소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사진 - 2010년 발생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하나님께서 화산의 분출을 통해 우리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시는 듯하다.

csmonitor.com/var/ezflow_site/storage/images/media/images/2010/0416/0416-volcano-iceland_7744687-1-eng-US/0416-volcano-iceland_full_600.jpg

한동안 잠잠했던 화산재가 다시 폭발하면서 유럽의 공항들은 다시금 폐쇄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여행객들은 다시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 할지라도 그 결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잠 16:1).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항상 그 앞에 D.V.를 붙이지요. Deo Volente,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약 4:15).

나아가 화산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돌아보며 참회할 때 채를 머리에 뒤집어쓰곤 했습니다. 육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티끌과 채’ 가운데서 한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깊이 뉘우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술 문명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화산재를 통해 바벨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산의 분출을 통해 우리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인간의 쾌락이 절정에 달했던 로마의 폼페이도 한 순간 화산 폭발에 의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복음적인 기독교 잡지인 이데아 스펙트럼(Idea Spectrum)을 보니 당시 한참 이슈가 되었던 가톨릭 성직자들의 미성년자 추행사건을 언급하면서 두 사제가 대화를 나누는 만평이 기재되었습니다. 한 사제가 아이슬란드의 화산재 기사를 보도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재를 뒤집어 씌우시는 구만.”

이번 화산의 분출과 화산재로 인한 항공 대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서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이 화산재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다시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로 예언했습니다.

‘재대신 화관을 씌우실 것이라(사 61:3)’

호화 유람선 침몰의 의미

지난 2012년 1월 13일 밤 4,200여 명을 태우고 지중해를 여행하던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이탈리아 북서 해변 토스카나 제도의 질리오 섬 인근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면서 침몰했습니다. 그 결과 11명이 사망했고 20여 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현대판 타이타닉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 참사에 대해 이탈리아 검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상세한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결국 그 원인은 프란체스코 세티노 선장의 황당하고도 무책임한 실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그는 휴가를 떠나지 못한 승무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이 승무원의 고향인 질리오섬 해안 가까이 접근하는 위험한 항로를 택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암초가 있음이 해도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진- 4,200 명을 태우고

지중해를 여행하던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선장의 실수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모습

cdn3.spiegel.de/images/image-304176-galleryV9-oxyb.jpg

나아가 이 선장은 사고 발생 직후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하였고 항만 당국의 복귀 명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승객과 승무원들을 대피시키면서 자신이 배 위에 머물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지역 해안 경비 대장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즉 선장은 승객들이 배를 떠나기 전에 먼저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 경비 대장의 복귀 명령도 거절한 채, 육지에서 택시를 타려다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그 후 세티노 선장은 법정에 출두해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려는 승객들을 돋고 있다가 보트를 선체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발을 헛디뎌 승객들과 동승하게 되어 선체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변명해 ‘슬랩스틱 코미디보다 더 황당한 변명’이란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무책임한 선장 한 사람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잃은 승무원들과 승객들만 어처구니없이 희생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저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수많은 귀한 인명과 그 큰 유람선을 하나의 장난감처럼 생각한 선장의 몰상식한 언행은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되기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 가운데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한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한 가정과 회사,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궁극적 방향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히틀러가 독일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자 육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되었고 스탈린이 소련의 선장이 되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혁명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본 천황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자국민들과 타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모택동이 중국의 리더가 되자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고 폴포트 정권이 캄보디아호의 선장이 되어 2백여 만 명이 집단 살상되었으며 김정일이 북한의 선장이 되니 수백 만 명이 짚어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 땅에서 그 분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장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그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한 어떤 폭풍과 암초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그 분 앞에서 풍랑은 잠잠해지고 암초도 제거되어 마침내 그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시 107:30).

그리므로 기독실업인회가 추진하는 국제 리더십센터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적 비전도 공급하여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시대의 영적, 물적 선장들을 양성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파두(FADO)

필자는 지난 2010년 2월초 포르투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포르투(Porto)에서 열린 유로파트너즈 리더십 리트릿(Europartners Leadership Retreat)에 참석했습니다(사진 1). 이 모임은 유럽에 흩어진 기독 실업인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평소에 BAM(Business as Mission)과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Marketplace Ministry)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 모임에서 귀한 분들을 만나 사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특별히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는 기독 실업인들이 함께 참석하여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르투갈 기독 실업인회를 ASPEC(Associação de Profissionais e Empresários Cristãos, www.aspec.pt)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은 포르투갈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님이셨고 대표는 독일 출신이지만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후 은퇴하신 분이 섬기고 계셨습니다.



사진 1- 유럽에 흩어진 기독 실업인

지도자들 모임 유로파트너즈 리더십 리트릿(Europartners Leadership Retreat): 2010년 2월초 포르투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포르투(Porto)에서 열렸다.

www.ozmailer.com/userFile/22283/1s8x9fojo.jpg



사진 2- 파티마: 가톨릭 성지로 마리아가 나타났다하여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해 국민들의 영적 지주 역할을 한다고 한다.

sacred-destinations.com/portugal/images/fatima/resized/plaza-nov-12-06-cc-roman-man.jpg

마지막 순서가 되자 어느 남자 분께서 나오셔서 파두(Fado)라는 특별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이 파두가 포르투갈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장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두(Fado)란 포르투갈어로 운명, 숙명을 뜻하는 말로서 영어의 fate, destiny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들에 대한 느낌은 예수 어린 곡과 노랫말, 가난한 이의 삶이나 바다에 대한 노래가 많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파두는 포르투갈의 ‘사우다지(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그리는 예수, 향수를 가리키는 말)’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들어보니 포르투갈이 과거에 해양 국가로 명성을 떨칠 때 수많은 남성들이 배를 타고 나간 후 소식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기다리다 평생 과부로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마음에 우리말로 소위 ‘한’이

맺힌 것입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 맺힌 노래가 바로 파두입니다. 보통 남자 두 분이 기타를 치고 여성이 노래합니다.

포르투갈 기독실업인회 회장님께서는 포르투갈 민족성을 대표하는 세 가지 F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파티마(Fatima, 사진 2)입니다. 이곳은 가톨릭 성지로 마리아가 나타났다 하여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할 정도로 성경적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영적 지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축구(Football)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무리뉴 감독,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지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국민들은 이 축구에 열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두(Fado)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면서 현재 높은 실업률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가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체념적 세계관이 이 파두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국민들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기독실업인회 저녁 모임에서 파두를 부르신 분은 그것을 복음 성가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파두의 애절한 멜로디를 그대로 살렸지만 거기에 복음과 소망을 담아 불렀고 그것을 포르투갈어와 영어 자막으로 함께 스크린에 비춰주자 그 뜻을 이해하면서 청중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변혁(transforma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간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빨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사 61:1-3, 표준새번역)”

제 3 부: 컹덤 비전

제 1 회 차이스타(CHISTA)의 비전과 감동

지난 2011년 10월 2일과 3일에는 매우 귀한 모임이 한국의 어느 수양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을 키워 주님의 제자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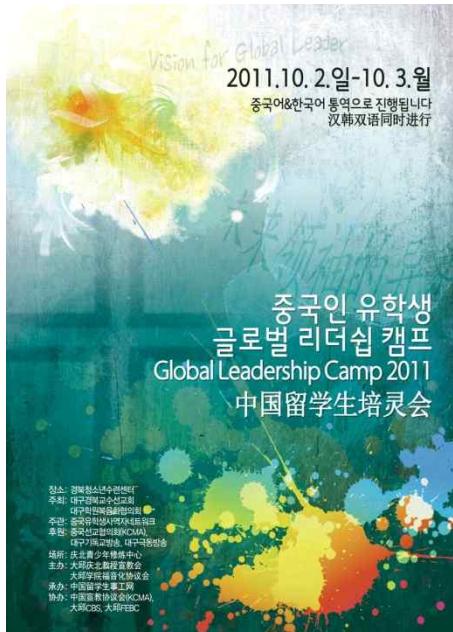


사진- 한국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을 키워 주님의 제자로

파송하는 모임인 CHISTA 를 알리는 포스터

happymaker.or.kr/files/attach/images/262/407/443/99e80311350c4af6fe7d579ef51000c1.JPG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코스타(KOSTA)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지난 25년 간 전 세계로 확장된 귀한 사역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학생 및 2세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역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전이 이제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 지역을 섬기는 교수 선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추진한 것인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만 중국 유학생들이 수천 명 있는데 각 대학별로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은밀히 진행되어 오던 중 이번에 첫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의미 깊은 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집회를 후원하는 교회들이나 개인들이 하나 되어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연합 사역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이지만 이 사역에 대해서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필요 이상으로 채워 주셨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며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선교 대상국가가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국 교회의 코스타와 그 노하우를 중국 교회에 접목시키셔서 영적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교회도 성장하여 세계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교회의 부흥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필자는 이 귀한 모습을 보면서 독일에서 사역할 때의 한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중국인 유학생들이 독일에 많이 왔습니다. 미국으로 가기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지만 두뇌가 우수한 학생들이 독일에 유학 오는데 먼저 그들은 어학원에 등록하여 독일어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인 유학생들을 만나 교회로 초청을 받게 되었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중국 형제, 자매들이 필자가 섬기던 교회로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시던 여 성도님들은 마치 자기 자녀들처럼 사랑해 주시면서 식사도 섬겨 주시고 독일어도 가르쳐 주시니 사랑에 굽주리던 중국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들 중 몇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의 부친이 중국의 큰 도시 시장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 주보 중 예배 순서에 한글과 독일어뿐만 아니라 한자도 함께 넣었고 성경 봉독도 한글, 독일어, 그리고 중국어로 함께 하면서 그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얼마 후 한 중국 자매가 저를 자기 기숙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열심히 빚어 만든 물만두를 대접하더군요.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만두를 먹은 후 그 자매는 저에게 왜 오늘 저를 초청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이 자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가 세례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흥 흘았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돌을 이렇게나마 감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렇게 1년 후에 기억하고 섬긴 경우는 이 중국 자매밖에 없습니다. CHISTA가 이제 첫 걸음마를 내디뎠지만 앞으로 KOSTA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ETF): 유럽의 숨은 보화



사진- 벨기에에 있는

복음적인 신학교 ETF: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리더를 배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www.madrene.nl/content/reacties/images/etf-leuven.jpg

벨기에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과 같이 유럽에서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수도 브뤼셀은 유럽 연합의 수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5년 간 사역하면서 왜 이 브뤼셀이 유럽 연합의 중심이 되었을까를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최소한 아래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나라 중 한 곳에 유럽 본부가 있다면 아마 힘의 균형이 한 곳으로 쏠려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 볼 때 네덜란드도 충분히 후보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기에가 더 유리한 것은 바로 불어, 독일어, 영어 및 네덜란드어 등 유럽의 주요한 언어들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어와 함께 다양한 문화권이 만나는 하나의 교차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벨기에는 유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심장 벨기에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매우 알차고 복음적인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바로 ETF(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www.etf.edu)입니다. 이 학교는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복음을 온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이며 신학 도서관으로서는 세계 최대인 루벤파대학교 도서관을 함께 사용하면서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 신앙 및 신학을 견지하고 있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 깜뻔, 그리고 아펠도른의 신학대학원과 교류하면서 종교개혁 500 주년 기념사업에도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학교는 유럽에 집중하여 쇠퇴해가는 유럽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으나 앞으로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특별히 미주와 한국에서 유능한 한인 유학생들이 와서 석, 박사 과정을 마치고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부는 네덜란드어로 진행되지만 그 이상은 영어가 공식 언어이며 정부로부터 정식 학위 과정을 인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필자가 본 대학원의 객원 교수로 있으며 총장 이하 여러 교수님들(독일, 네덜란드 및 벨기에 출신)과 교제하면서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한국 교회 및 신학대학원들이 미국과 네덜란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보니 이 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학문적 수준이 높아 제가 보기엔 ‘유럽의 숨은 보화’와 같으며 심지어 네덜란드 학생들도 상당수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긴 강의에도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및 케냐 학생들이 함께 세미나 형태로 진행하며 서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 및 신학대학교 및 대학원의 여러 교수님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으며 유학생들이 와서 귀한 학업과 경험을 쌓아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제단 배치

한국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미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지에서 학업과 사역을 하면서 필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제단과 유럽 교회의 제단 배치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강대상 뒤 혹은 옆에 목회자와 장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의 사회로 섬기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 그리고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앉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대부분 예배 시간 내내 강대상 뒤편이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진- 의자가 없고 십자가와

성경만이 놓여 있는 독일 개신교회 내부: 예배가 시작되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 제단을 향하여 앉아 있다가 사회, 기도, 설교 등 필요할 때에만 목회자가 앞으로 나간다.

www.kirche-raderthal.de/media/kirche_web/Gold_Kopp_120_web.jpg

그러나 독일 개신교회의 경우 대부분 제단에는 아무 의자가 없습니다. 제단에는 십자가와 성경, 그리고 예배 시간 중에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불이 켜지며 앞쪽으로 교회력에 맞게 수놓은 천이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 함께 제단을 향하여 앉아 있다가 사회, 기도, 설교 등 필요할 때에만 목회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찬송을 부를 때에는 다시 희중의 자리 중 앞좌석에 앉아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심지어 설교단도 제단의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사진). 필자는 독일에서 7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이 부분이 매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경우에는 장로들의 자리가 강대상 옆쪽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찬양대는 위층에 올라가 있었으며 목회자는 사회와 설교를 위해 강대상 뒤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경우에는 성도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뒤로 내려져 있고 작습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제단에 의자가 있는 교회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벨기에에서

사역할 때 제단 위에 있던 의자들을 회중석으로 내려놓고 그곳에는 성경만 두었으며 설교단도 중앙이 아닌 성경 옆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예배 시간 중 찬송을 부를 때는 회중의 자리로 내려와 제단을 바라보며 성도들과 함께 불렀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기보다는 제단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등지고 함으로써 성도들을 대표하여 주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제단 배치가 교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의자들이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근본적으로 반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며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이며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예배시간 내내 강대상 뒤에 앉아 있는 것은 자칫 인간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강대상도 약간 옆으로 배치하며, 그 반대편에는 사회로 섬기는 분이 예배를 인도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한국의 일부 교회들은 이미 열린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한국 교회가 자주 비판받는 권위주의를 제거하고 좀 더 성도들과의 턱을 낮추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제단이 차지하는 면적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수종자임을 기억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유럽교회의 연합운동(Jesus Unites)

지난 2011년 5월 5일(목)부터 7일(금)까지 독일 중부의 에센(Essen)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매우 특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다(Jesus Unites)’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모임(www.jesus-unites.org)에서 독일과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독일과 유럽을 재복음화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강사들이 이론 및 실제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독일 및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다문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빌리 그래함이라고 불리며 ProChrist(www.prochrist.org)라는 전도집회를 주관하시는 울리히 파르차니(Ulrich Parzany)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 교회들은 매우 강한 복음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독일에 영향을 미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일 교회들과 국제 교회들과의 복음적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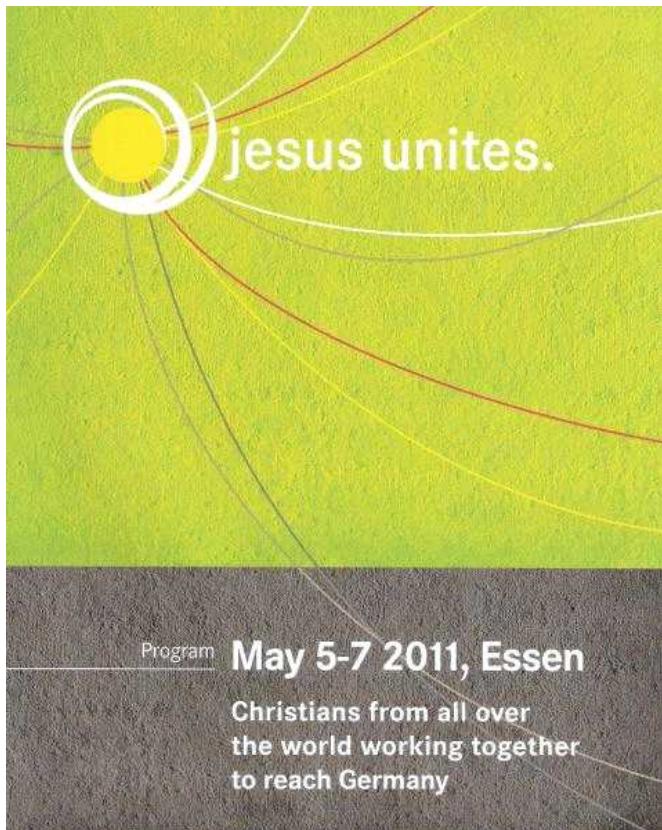


사진 - Jesus Unites 컨퍼런스: 독일과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독일과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여러 이론과 실제 경험 등을 나눴다.

image.ozmailer.com/userFile/22283/wzd8jxy8b.JPG

다문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모든 민족과 언어 및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가령 앤디옥, 빌립보 교회)이라고 보여 주므로 국제 교회는 오늘날 매우 필요한 비전입니다. 가령 독일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구 서독의 수도였던 본(Bonn)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국제 교회를 개척하여 성공한 케이스를 그 교회 담임이신 마리오 반샤페(Mario Wahnschaffe) 목사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셨습니다(www.clw-bonn.de). 이 분의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독일에서의 사역과 현재 벨기에에서의 사역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독일에서 네 교회를 주님의 역사로 통합한 켈른한빛교회의 다양한 다문화 사역들과 벨기에에서의 여러 국제 협력

사역들을 파워포인트로 설명했는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신약에 나타난 다문화 교회들에 대해 베르너 칼(Prof. Dr. Werner Kahl) 교수님이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발표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핵심적 이슈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실행은 동시에 많은 갈등을 낳기도 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현재 유럽에는 비 서구 출신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복음은 유럽과 북미주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도 이러한 모델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및 북미주의 대형 한인교회들이 더 이상 한인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영어 예배를 별도로 드리기보다) 통역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협력하여 섬기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진정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 42:6).

한민족 재외동포 세계선교의 비전

지난 2011년 7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서울 햇불선교센터와 잠실 체육관에서는 매우 특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사진 1, 2). 한민족 재외동포 세계선교대회(Korean Diaspora Conference for World Mission)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 집회는 전세계에 흩어진 한민족들의 모임이었는데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재현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역 사역자들로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더 큰 영향력을 세상에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강사들이 이론 및 실제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진 1- 한민족재외동포세계선교대회를 알리는 포스터

www.koreanchurch.be/bbs/data/prayer/110516_29_2.jpg



사진 2-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사역자들은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재현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www.missionnews.co.kr/lib/news/files/attach/images/54/634/035/iaspora.jpg

저는 유럽지역을 섬겼는데 이 대회를 통해 깨달은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 및 축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섬깁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모인 2천여 명의 디아스포라 한민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모인 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흘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후 다시 흘으십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원치 않게 이집트로 팔려 갔던 요셉은 마침내 온 이집트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펁박으로 흘어졌지만 오히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초기에 대부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흘어졌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멕시코의 애니깽으로 흘어졌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까레이스끼로, 일제시대 강제 징용에 의해 일본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 중국의 조선족으로 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심겨진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셋째는 우리를 흘으신 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흘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인 선교대회는 마치 천국 잔치를 보는 듯했습니다. 개회예배 시 국악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한국 전통의상 패션쇼는 많은 분들의 탄성을 자아내었습니다. 이화여대 발레단은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쳐 감동을 주었고 어느 예술인 형제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몇 분 만에 그려내는 드로잉 쇼(Drawing show)를 통해, 어느 자매는 모래 애니메이션(Sand animation)을 통해 디아스포라를 그려내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역을 대표한 분들이 모인 토크쇼와 지역 모임들, 각 대륙 별로 준비한 문화공연 등을 통해 모든 참석자들은 하나 되어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유럽에서는 1세 사역자들과 더불어 2세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는 2세가 목회자가 되어 프랑크푸르트 시티 교회(Frankfurt city church)를 개척하여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전세계로 흘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평화스러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선교대회에서 받은 감격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모인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다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전 세계에 나아갔던 그 역사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킹덤 디아스포라 비전(Kingdom Diaspora Vision)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Thanksgiving Sunday, 사진 1)로 지킵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원래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이 공식적인 추수감사일(Thanksgiving Day)인데 사실 그 주간 전체가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휴가기간입니다. 필자가 1986년 필라델피아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첫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에 근무하던 한 미국인 직원 가정에서 초청해 주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어 외롭지 않게 보내었던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날짜가 다릅니다. 매년 10월 둘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일이라고 합니다. 기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는 11월 첫째 목요일에,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인 노폴크 아일랜드(Norfolk Ireland)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 년 중 하루를 감사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감사하며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매우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도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독일 교회도 감사주일(Erntedankfest)이 있지만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섭기던 교회도 아예 10월 첫째 주일로 정한 적이 있고 벨기에에서도 같은 주일을 정했습니다. 나아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월 중순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미 추수가 끝나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이지만 추석은 온 국민이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절기이므로 반드시 미국의 전통을 답습하기보다는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석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를 추도예배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한국 문화의 전통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변혁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포스터

churchinjapan.com/images/YONGPUM/B04-c015.jpg



사진 2- 독일 개신교회는 거의

추수감사 주간과 일치하는, 강림절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주간을 ‘회개와 기도의 날’로 지킨다.

ais.badische-zeitung.de/piece/00/74/ab/eb/7646187.jpg

이와 동시에 저는 또 하나의 절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림절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거의 추수감사 주간과 동일한 주간의 수요일을 독일 개신교회는 ‘회개와 기도의 날(Buss- und Bettag)’로 지킵니다(사진 2). 그 성경적 근거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본문(욘 3:4-10)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절 이전 4주간이 시작되는 강림절(Advent)이 신년이므로 그 전 주간은 사실 마지막 주간이며 따라서 그 주일을 ‘영원주일(Ewigkeitssonntag)’ 또는 ‘망자주일(Totensonntag)’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강림절(Advent lost)

지난 2012년 12월 2일(주일)부터 24일(월)까지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Advent)이라고 불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섭기는 한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이 절기를 지키는 한국 교회가 극소수임을 발견하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12월 2일에 방문했던 포항의 한 대형교회도 강림절 첫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와 전혀 상관없는 성경 본문으로 설교가 이루어졌고 찬송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강의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문의했을 때 그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강림절에 관한 설교를 들은 학생들은 단 한 교회뿐이었습니다.

강림절은 교회력에 의하면 신년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연말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연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시작과 끝이 교차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성탄을 다시금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론적인 절기입니다. 따라서 강림절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는 이 기간에 예배드릴 때 반드시 강림절 촛불(사진 1)을 켭니다. 붉은 색, 또는 보라색 초를 네 개 준비한 후 첫째 주일에는 하나, 둘째 주일에는 둘, 셋째 주일에는 셋,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일에는 모든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중간에 큰 흰색 촛불을 켜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물론 여기서 촛불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진 1- 독일 교회에서는 강림절에 예배드릴 때 반드시

네 개의 강림절 촛불을 차례차례 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images-photo-s.de/bilder/fotos/images/photos/2011/10/kerzen-im-advent.jpg



사진 2- 독일의 아이들은 강림절 달력을 선물로

받는데 달력 안의 해당하는 날 숫자를 열면 초콜릿이 들어 있어 그것을 먹으면 성탄을 기다린다.

gedichte-garten.de/adventskalender/advent.jpg



사진 3- 이 기간에만 열리는 특별 성탄시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과자와 커피나 차를 마시며 선물과 장식품을

구입한다.

osningbahn.de/new/images/dbimages/cms/image/weihnachtsmarkt-koeln.jpg



사진 4- 독일 가톨릭교회나 성공회 등에서는 강림절

첫째 주간부터 크립페(Krippe)라는 예배당 제단 옆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하는 모형을 아름답게 만들어 장식한다.

anicursor.com/IMG_2818_krippe.jpg

이 절기에 아이들은 대부분 강림절 달력(사진 2)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달력은 강림절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 이전까지 숫자가 임의로 섞여 있는데 그 해당하는 날에 아이들이 숫자를 열면 그 뒤에는 맛있는 초콜릿이 들어 있어 그것을 먹으며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간에만 열리는 특별 성탄시장(Christmas Market, 사진 3)이 있는데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과자들과 커피나 차를 마시며 다양한 선물과 장식품을 구입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신교회는 별로 하지 않지만 가톨릭교회나 성공회 등에서는 강림절 첫째 주간부터 예배당 제단 옆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하는 모형을 아름답게 만들어 장식합니다. 독일어로는 크립페(Krippe, 사진 4)라고 하는데 웨른에는 여러 성당들과 교회에서 각자 독특한 예술적 감각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그것만 관광하는 상품이 있을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창조 안에 있으므로(고후 5:17) 강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압축해 놓은 매우 귀한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절기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재난인가 진통인가?

2011년에 지구촌은 수많은 재해들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상 최대의 지진과 해일(쓰나미)로 2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거나 실종되었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천문학적 수자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으며 그 후에도 여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일본 열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강국인 일본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자 국제 경제에도 파장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국채가격이 떨어졌고 각종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경제도 예측을 불허하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한 지역의 피해가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중동에는 역사에 유례없는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튀니지와 알제리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집트에서 철권통치를 하던 무바라크를 무너뜨렸고 리비아도 내전 상태에 빠졌으며 이에 미국과 유럽 연합이 개입하면서, 시리아, 바레인, 그리고 예멘 등지에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보리코스트와 나이지리아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 두 명의 후보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전국을 전쟁터로 만들어 무고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개역개정). 그런데 표준새번역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재난’과 ‘진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전쟁, 지진, 해일, 기근 등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경고성 사인인 반면 후자는 긍정적인 것을 암시합니다. 진통이란 임산부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산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 원문도 보면 8절의 *πάντα δὲ ταῦτα ἀρχὴ ὡδίνων*에서 *ὡδίνων*은 산고의 진통을 뜻합니다(참조 막 13:8). NIV 성경도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NASB도 the beginning of birth pangs으로, 둘 다 재난의 의미라기보다는 진통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진- 2011년 지진과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일본: 재난은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다.

i.dailymail.co.uk/i/pix/2011/03/15/article-0-0B2D7C2600000578-689_964x641.jpg

결국 이 말씀은 종말론적 재난의 양면성을 계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재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를 낳은 후 기쁨에 겨워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산모와 같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런 의미로 말합니다.

“괴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개역 개정)” 여기서도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원어는 말하고 따라서 표준새번역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 즉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는데 여기서 신음도 산고의 고통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따라서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세계에



사진 1-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열린

세계복음화대회: 빌리 그레함 목사 등,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문서로 인정되고 있는 로잔 언약을 발표했다.

[www2.wheaton.edu/bgc/archives/images/PFs/International-Congress-on-World-Evangelization-\(ICOWE\)-1974/007.jpg](http://www2.wheaton.edu/bgc/archives/images/PFs/International-Congress-on-World-Evangelization-(ICOWE)-1974/007.jpg)



사진 2- 1989년 미닐라에서 개최된 제 2차 로잔

대회: 이 대회를 통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복음주의적 교회들과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

www2.wheaton.edu/bgc/archives/images/PFs/International-congress-on-world-evangelization-I-I-1989-2/008.jpg



사진 3-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 3 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포스터

www.discriminatingtheworld.com/images/wpi/LausanneCongress-CapeTown2010.jpg



사진 4- 제 3 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모습

www.crossoveronline.com.au/wp-content/uploads/2010/10/laus1.jpg

2010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는 제 3 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사진 3, 4). 이 대회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열렸는데(사진 1) 그때 미국의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님과 영국의 존 스토퍼(John Stott)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 로잔 언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언약은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문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후 제 2 차 로잔 대회는 15년 후, 1989년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사진 2). 이 대회의 중요한 성과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복음주의적 교회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면서 복음을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도하는 총체적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어 그 후 10년 동안 300개 이상의 새로운 협력 조직들이 창립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대회는 21년 만에 열렸는데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와 협력하여 개최되어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4,0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어 교회의 미래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한 이 대회는 한 번 모인 후에도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전략적인 대화와 행동을 통해 교회의 사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과 문화를 잘 분별하여 교회가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즉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삶을 변화시키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육체적, 감정적인 상처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변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구촌의 교회들이 당면한 글로벌 이슈들은 무엇일까요? 로잔 대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6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새로운 무신론의 도전입니다. 복음적 신앙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십자가 중심,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원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무신론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공격해 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변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향락주의(hedonism)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도덕적, 그리고 성경적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타락된 이미지와 메시지들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점점 형식화되고 피상화되며 더 나아가 축복만 강조하는 번영의 복음(prosperity gospel)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회개와 쟁신,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 진정성(authenticity)과 정직성(integrity)을 유지하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로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슬람의 실재(the reality of Islam)입니다. 전세계의 12억 무슬림들은 매년 한 달 간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을 보내며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글로벌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매우 교묘한 전략으로 아랍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학들과 정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에 못지 않은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글로벌화 된 세계입니다. 대도시들, 디아스포라, 신기술들, 사회적 네트워킹, 정치적 부패 및 차세대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는 글로벌화 된 세계의 몇 가지 실례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욱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개인, 가정, 공동체 및 국가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소망과 평화의 사람들로서 화해의 대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Cape Town 2010의 주제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화 된 기독교의 대대적인 지각변동(Seismic Shifts in Global Christianity)입니다. 상호존중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관계는 대부분 세계적인 리더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평신도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한 자원들과 최선의 실제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 세계에(the whole church (will)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회의 결과 케이프 타운 서약(Cape Town Commitment)라는 문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문서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제 4 부: 현실과 세계관

세인트 루이스의 종교다원주의

얼마 전 필자는 미국 중부 미주리 주의 수도인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미국이 서부 개척을 시작한 관문으로, 게이트웨이 아치가 유명합니다(사진 1).

이곳을 방문하면서 놀란 것은 매우 다양한 종교기관들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힌두교 템플이 있었습니다(사진 2). 기독교 대학인 미주리 뱅티스트 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캠퍼스 부지의 일부를 매각했는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그곳에는 지금 몰몬교도들의 새 성전이 웅장하게 건립되어 있었습니다(사진 3). 그리스 정교 및 콥턱 교회 건물이 있는가 하면 복음적인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도 물론 있었습니다.



사진 1- 미국 서부 개척의 관문인 세인트

루이스는 게이트웨이 아치가 유명하다.

mentalfloss.com/wp-content/uploads/2009/03/gateway-arch.jpg



사진 2-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힌두교 템플

jandarpan.com/news/images/4b1777fb-b9c8-44ce-90ec-f603e115d02b.jpg



사진 3- 세인트 루이스에 세워진 몰몬교 성전

교 성전

ldschurchtemples.com/stlouis/gallery/images/saint-louis-mormon-temple16.jpg



사진 4- 미국 루터란교회를 대표하는 컨콜디아 신학원

seminaryreviews.org/wp-content/uploads/2011/11/Concordia-MO.jpg

이렇게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워싱턴 대학교와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를 비롯해 가톨릭 여대인 폰트본느 대학교, 침례교에서 세운 미주리 뱃디스트 대학교, 미국 장로교 교단신학교인 커버넌트 신학원과 함께 미국 루터란교회를 대표하는 컨콜디아 신학원도 이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사진 4).

심지어 고등학교도 유명한 곳이 많아 가톨릭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있는가 하면 개신교 계통인 웨스트민스터 크리스천 아카데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 출신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커버넌트 신학원의 대학원장님과 몇몇 교수님들, 그리고 미주리 뱅티스트 대학교의 학장님과 몇몇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대화하며 교제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 분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섬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신앙고백을 원하셨던 사건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수많은 로마 황제 우상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믿음을 고백했으며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마 16 장). 나아가 사도 바울도 당시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헬라 철학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지혜롭고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행 17 장).

세인트 루이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적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들, 세계관들, 종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각자 자기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고후 10:5).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지난 몇 년 간 계속해서 전 세계는 그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가 유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우려가 전세계 증권시장 및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총선을 통해 다시 유로존에 남는 것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들이 첨첩산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유럽 문화의 뿌리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헬레니즘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았습니다. ‘유럽’이란 말조차 그리스어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공주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이란 그리스 철학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그리스의 문화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정신적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헬레니즘(Hellenism)의 본질은 ‘인본주의(Humanis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및 자율성에 기초하여 세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그 결과 서로 조화되지 않는 수많은 학파들을 낳았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현재 그리스의 위기는 바로 이 인본주의적 헬레니즘이 안고 있던 배울적 긴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서양의 사상과 문화에 있어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을 ‘헤브라이즘(Hebrais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신적 계시에 기초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라이즘의 궁극적 뿌리는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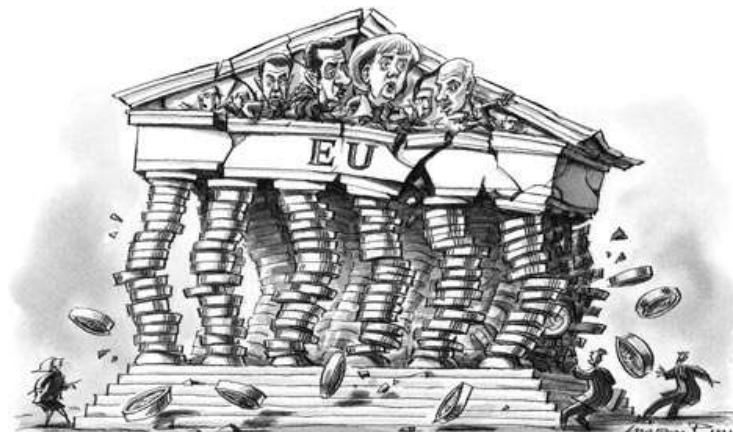


사진 1-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가

유럽을 송두리째 흔들었으며 인근 나라로 확산될 우려는 전세계 증권시장 및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

megoracle.files.wordpress.com/2012/01/f4d1c8c0-1fe6-11df-8deb-00144feab49a.jpg



사진 2- 하락하고 있는 그리스 경제지표

www.defencegreece.com/wp-content/uploads/2011/11/greece-financial-crisis.jpg

이 두 사상, 즉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헬레니즘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꽃을 피웠으며 헤브라이즘은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을 통해 그 체계를 세웁니다. 결국 로마제국이 복음화 되면서 후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세에 들어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양자를 종합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은 다시 나뉘어져 각각 르네상스(Renaissance)와 종교개혁(Reformation)으로 발전합니다. 전자는 그리스적 인본주의 이상의 부활을, 후자는 성경에 충실한 세계관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인본주의는 다시 계몽주의 시대에 세력을 회복하여 서구 사회 및 문화를 지배하였으나 결국 제 1, 2 차 세계대전 및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좌초하였고 그 결과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은 카이퍼 등의 신칼빈주의와 같은 종합적 세계관으로 발전하여 현대의 위기에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에도 정교가 있으나 현재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서구의 경제 강국들은 대부분 개신교 정신이 강한 나라들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청지기적 책임의식(stewardship)’을 강조하는 성경적 경제관을 새롭게 목상하며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남 스타일인가 킹덤 스타일인가?

2012년 후반 대한민국의 가수 싸이(Psy)의 노래인 <강남 스타일(Gangnam Style)>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의 여섯 번째 앨범 《싸이 6 甲 Part 1》의 세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 곡으로 지난 2012년 7월 15일 음반으로 발매된 이후 한국 가온 디지털 종합 차트와 코리아 K-Pop 핫 100에서 1위를 했고, 해외에서도 영국,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1위를 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에서도 5위권에 진입하는 등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빌보드 핫 100에서도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차트에 진입하여 2012년 10월 중에 2위까지 오르며 아시아인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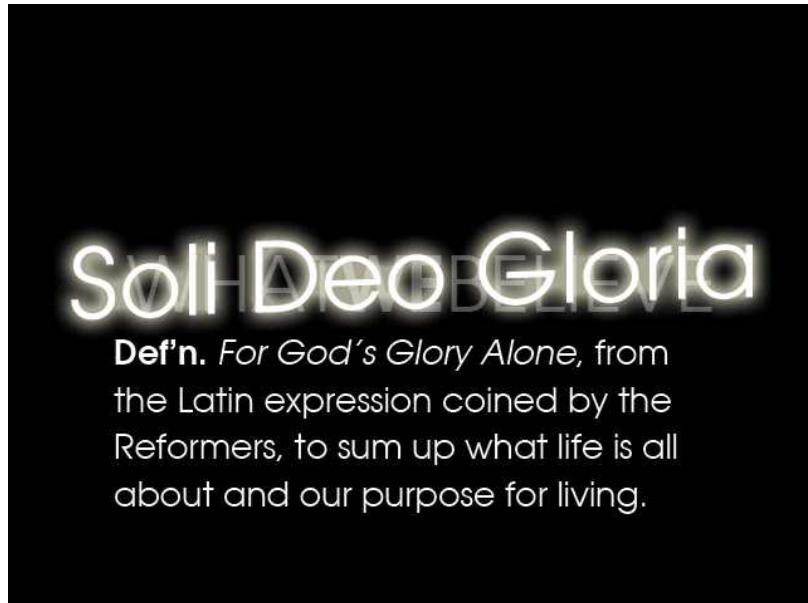
이러한 놀라운 성공에는 뮤직비디오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한국 기준 시각으로 2012년 10월 20일 현재 유튜브에서 5억 조회수를 넘겨 아시아 가수로는 최고이며 역대 유튜브 조회수 3위에 이르는 성적이고, 420만이 넘는 좋아요 추천을 받아 최다 ‘좋아요 추천’ 분야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 있고 MTV 유럽 뮤직 어워드 최우수 비디오상 후보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한 한국인의 노래와 뮤직 비디오가 이렇게 단기간에 전세계를 휩쓴다는 사실은 진정 놀랄 만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1-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앨범

cfile9.uf.tistory.com/image/1866934D5003C7F71AB19A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이다.

4.bp.blogspot.com/-AlP-rEEefSk/UJQwxUjQIxI/AAAAAAAAP4/5oTh-bgpa8E/s1600/37defn-soleo-gloria.jpg

저는 이 주목할 만한 상황을 보면서 이 현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래의 가사를 좀 더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직접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윤리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춤을 추며 신나게 즐길지라도 그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단지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킹덤 스타일(Kingdom Style)’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킹덤 스타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선 삶의 목표(Goal)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이며, 그 동력(Dynamic)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Sola Gratia)이고 동기(Motive)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감사(Sola Fide, out of love and gratitude for God)이며, 상황(Context)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인 동시에 그 기준(Standard)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Sola Scriptura)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로 네덜란드에 오래 살았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는 그리스도인들의 킹덤 라이프스타일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드리는 삶(Living unto God: *Theozoa*)’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더욱 깨어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세상을 정화하고 변혁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골 3:1-17).

인사에 담긴 세계관

독일의 남부 지방과 스위스, 또는 오스트리아를 여행하신 분들은 그곳 현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Grüß Gott(그뤼스 곳)”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Greet God'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19 세기 한 가톨릭 사제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며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⁴

그런데 이 말은 원래 ‘(Es) Grüße dich Gott’ 및 그 복수형인 ‘(Es) Grüße euch Gott’의 준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사한다(may God greet you)’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사 ‘grüßen(greet)’는 원래 ‘축복한다’는 ‘segnen(to bless)’과 비슷한 말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인사한다(to greet)’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인사말의 본질적 의미는 ‘grüß (dich) Gott’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빕니다(God bless you)’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Jumalan terve”라고 인사하는데 동일한 의미(Greet God)입니다.



사진 1- 독일어로 “Grüß Gott(그뤼스 곳)”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사한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빕니다’라는 뜻이다.

www.q-vadis.net/img/gruess-gott.jpg

⁴ <http://en.wikipedia.org/wiki/Gr%C3%BCss-Gott>



사진 2- 롬 11:36

farm4.static.flickr.com/3296/2810128376_657217bc4f.jpg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갈릭어를 사용하는 아일랜드인들은 인사할 때 'Dia dhuit'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God with you)'는 뜻이며, 이는 영어의 'Goodbye'와도 유사한데 이 말 역시 같은 의미(God be with ye)를 줄여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독일에서 사역할 때 한 모임에서 어느 독일 목사님을 만난 후 헤어지는데 그 분이 저에게 'Gott sei mit dir(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이라고 인사하시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다른 유럽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령 프랑스 사람들은 헤어질 때 지금도 'adieu(아듀)'라고 말하며 스페인어로는 'adiós(아디오스)', 이태리말로 'addio(아디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adeus(아데우스)'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께로(To God)'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유럽의 인사말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 안에 그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후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복주셨다(blessed)'고 말씀합니다(창 1:27-28).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인사가 '복주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탄생과 이 땅에서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렇게 진행되며 그렇게 끝날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아론의 대제사장적 축복(민 6:23-26)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승천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눅 24:51-52).

나아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36에서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사진 2) 만물의 기원과 과정,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기독교 세계관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신앙인들은

헤어지면서도 ‘하나님께로’라고 인사하면서 궁극적 본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안녕’은 성경의 ‘샬롬’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이 없이 사용했지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인사말을 사용한다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역

지난 2011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제 19 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초로 필리핀계 여성인 이 자스민 씨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사진 1). 그녀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 지방 출신 방송인 겸 배우인데 1993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1995년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와 3년 뒤 한국인으로 귀화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적지 않은 인종차별적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 아직도 배타적인지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는 법적으로 분명한 한국인입니다. 귀화 여성으로서 남편을 일찍 사별하는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대변자로서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적법한 국회의원이 된 것을 축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 1- 대한민국 제 19 대 국회의원이 된 필리핀계

이 자스민 의원

photo.donga.com/udata/photonews/image/201110/31/20111031070/20111031070_1.jpg



사진 2- 독일의 자유민주당 당수인 필립 뢰슬러는

베트남 입양아 출신이다.

asien-news.de/wp-content/uploads/roesle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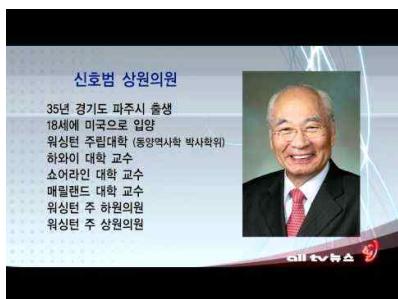


사진 3- 미국 신호범 상원의원

ytmp3.cc/vi/Fs9zSU4HnXo/0.jpg



사진 4- 밴쿠버의 월링돈교회: 여러 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약 10 개의 언어로 동시통역된다.

media.canada.com/idl/vasn/20110514/VASN_20110514_Final____A14_20961_I001.jpg?size=620x400

한국은 전체 인구 약 4,800 만 명 중 이주민의 인구는 약 150 만 명으로 아직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 약 8,100 만 명 중 이주민의 인구는 약 천 600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로 추산합니다. 가령 2011년부터 독일의 자유민주당(FDP) 당수가 된 필립 뢰슬러(Philip Roessler: 사진 2)는 약관 40 세의 베트남 입양아 출신입니다. 독일 부모 아래 성장하여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로 활동하다가 30 대 중반에 보건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경제기술부 장관 및 부수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독일 정부의 이민 정책을 보여 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신호범 의원(사진 3)을 비롯하여 한인 출신들이 상, 하원의원으로 많이 진출했으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프랑스 총선을 통해 올랑드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인 입양아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환영하면서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인종주의(racism)나 한 민족의 우월주의(ethnocentrism)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순종을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함께 사는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이웃처럼 사랑할 것을 명하셨고(출 22:21; 23:9) 룻기는 분명히 이방인도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함을 보여 줍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또한 대부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다문화, 다인종 교회였습니다(갈 3:28).

필자가 밴쿠버에 강의 차 방문했을 때 월링돈교회(www.willingdon.org)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사진 4). 이 교회는 그야말로 무지개 교회였습니다. 오전 예배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영어로 예배드리며 약 10 개 언어로 동시통역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각 민족 별로 모여 자기 언어로 성경공부와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교회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이러한 모델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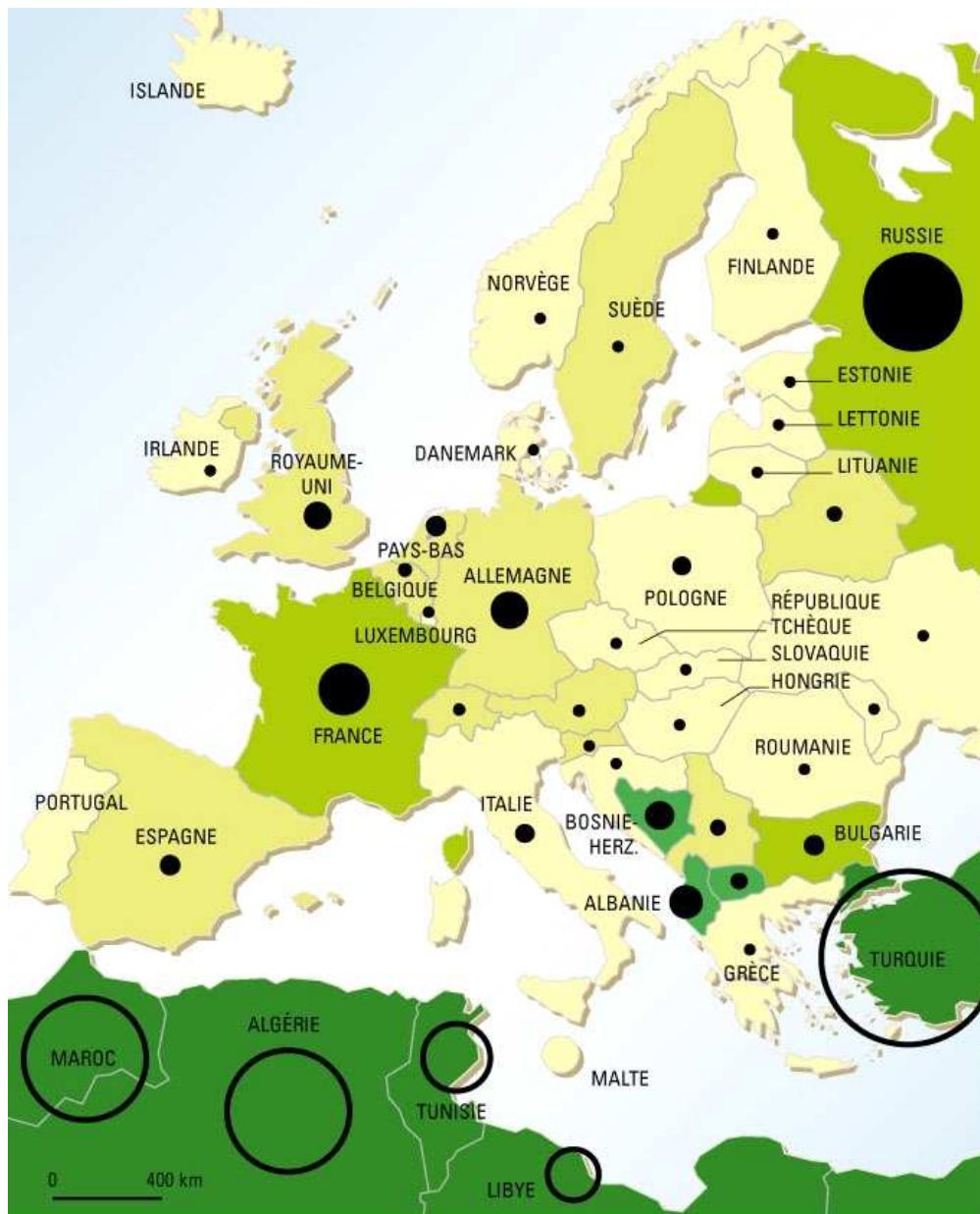
앞으로 국내외 교회들이 다문화 사역을 통해 진정한 ‘보편적 교회(universal church)’로 거듭나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유럽의 이슬람: 도전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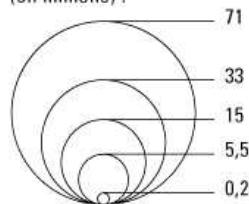
한국에도 이슬람이 매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유럽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유럽의 무슬림들도 인종, 종파, 철학, 그리고 정치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슬람은 현재 다종교 사회인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이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5% 증가했으나 2050년에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더 많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9개의 대표적인 유럽 국가에 약 7,000여 개의 모스크와 이슬람 예배 장소가 흩어져 있는데 그 중 80%가 독일(2,500), 프랑스(2,000), 그리고 영국(1,50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백인들이 매년 1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기에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보다 절대 소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갈 경우, 2050년이 되면 이슬람이 유럽 최대의 종교가 될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래서 어느 만평가는 이때쯤 되면 독일도 국명이 'New Turkey'로 바뀔 것이라는 그림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슬람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보다 조직적인 방법으로 터키 출신 이슬람 운동가 페틀라 굴렌(Fethullah Guellen)은 영국을 유럽 이슬람의 센터로 만들기 위해 여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Population musulmane
(en millions) :



99,8 Part des musulmans
dans la population nationale
(en %) :



Réalisé avec Philcarto
<http://perso.club-internet.fr/philgeo>

사진 -

유럽을

Sources :

- CIA, *The World Factbook*,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
- 2005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http://www.state.gov/g/drl/rls/irf/2005/>
- Kosovo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patial Planning
- Europe : <http://news.bbc.co.uk/2/hi/europe/4385768.stm>

Roberto GIMENO et Patrice MITRANO, juillet 2006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Source : *Questions internationales* n°21, sept.-oct. 2006

Les musulmans en Europe

잠식해 가는 무슬림

www.islamicglory.com/en/images/Islam%20in%20Europe.jpg

제가 아는 한 네덜란드의 여자 목사님은 자기 딸이 터키의 무슬림 청년과 결혼하면서 무슬림으로 개종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벨기에 남편과 결혼한 한국 여 성도님의 큰 아들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다가 무슬림의 계략에 말려 들어 7년이 넘도록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부모의 큰 기도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한 한인 집사님 내외분 아들도 학교에서 무슬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결국 무슬림으로 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지만 무슬림 친구가 진정한 신앙과 경건한 삶을 보여 주자 이 아들의 마음이 이슬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럽의 이슬람은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내에도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힘이 무슬림에게 있으며 이슬람 법(Sharia)이 집행되는 ‘이슬람의 집(House of Islam, Dar al-Islam)’과 무슬림이 소수로 정치적인 힘이 없는 ‘전쟁의 집(House of war, Dar al-harb)’으로 구분되며, 무슬림은 심판의 날까지 전쟁의 집이 이슬람의 집으로 전환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개인적 결단과 구원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슬람은 공동체의 환경을 이슬람 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체를 이슬람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교회 성도들은 이웃 무슬림을 사랑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소위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할까요?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이라면, 그리스도인들 또한 복음을 향한 새로운 열정과 헌신만이 최선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먼저 무슬림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의 무슬림 친구를 사귀어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레 19:33-34).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정을 쌓으며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대화하며 구체적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며 필요할 때 성경 구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논쟁에서 승리해도 상대방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지혜로운 질문으로 무슬림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당신은 알라가 당신에게 천국을 허락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용서에 대해 코란은 무엇을 가르칠판니까?’ 등입니다. 또한 무슬림 문화를 존중하여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결국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시도록 위임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유럽의 한인 2세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장차 한국 교회들은 전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각기 이 이슬람의 도전을 유념하면서 2세들의 신앙교육에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가르치고 선교 전략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가장 치열한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샬롬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카니발(Carnival)과 사순절(Lent)

매년 사순절을 앞두고 전세계는 카니발로 떠들썩합니다. 필자가 사역했던 퀼른도 독일에서 가장 카니발이 유명한 곳입니다(사진). 원래 카니발이라는 말은 고기를 먹는 것을 감사하는 축제, ‘사육제(謝肉祭)’란 뜻인데 이것은 사순절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40 일 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며 40 일 간 육식을 먹지 않고 참회하며 희생하는 사순절 바로 전에 고기도 실컷 먹고, 놀고, 마시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이 축제의 기원은 로마시대의 동지제(冬至祭, 12 월 17 일)라고 합니다. 그리스-로마인들은 긴 겨울의 악령들을 몰아내는 뜻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습을 받아 들여 카니발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기간은 주현절(Epiphanias, 1 월 6 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전 날인 화요일까지 계속되다가, 그 후 성회 수요일 직전 한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 각국에서는 가장 행렬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쾌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것을 ‘der Teufel ist los(악마가 놓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모습을 하지요.

카니발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계급을 무시하고 함께 즐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원래 가톨릭에서는 카니발의 현란한 의상과 가면 등의 분장들이 인간의 7 가지 죄악(교만, 시기,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정욕)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티할 때는 죄짓는 것을 미화하는 공연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독일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카니발 시즌은 독일 민족이 집단적으로 유혹을 받는 가장 큰 연중 행사다.”

종교 개혁자들은 형식적인 교회 의식들을 과감히 폐지했는데, 카니발에 관한 부분들도 간소화 내지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강한 지역에는 카니발이 거의 없지요. 하지만 회개와 기도의 기간인 사순절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40 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려면 힘드니까 카니발 때 실컷 놀고 죄도 짓자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 장 1-2 절에서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1- 카니발을 즐기는 독일 텔른 사람들: 원래

카니발은 고기를 먹는 것에 감사하는 축제, '사육제'라는 뜻이다.

www.msm-maedge.de/Neue_Dateien/altermarkt1.JPG



사진 2- 카니발이 열리는 한 주간 동안

각국에서는 가장 행렬, 파티 등을 하면서 쾌락을 자극한다.

i2.pinger.pl/pgr497/2e39a9e90013896a4d6e4cbd/koelner-karneval-Strassenkarneval-1024x682.jpg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표준새번역)”

카니발에 대한 독일 개신교회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쪽에서는 찬성하면서 카니발을 하나의 전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반대하는데 그 근거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니발이 주는 쾌락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즐거움, 즉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롬 12:12)과

다릅니다. 카니발은 육체의 정욕으로 빠질 위험이 매우 많습니다(벧후 4:3). 가령 브라질의 Rio de Janeiro에서 열리는 카니발은 너무 광란적이어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요? 화려한 의상과 분장, 그리고 가면 뒤에는 인간의 추잡한 욕심이 도사리고 있고, 사탄의 분장이 오히려 미화됩니다. 퀼른에서 카니발을 주관하는 위원회를 소위 십일 명 위원회(Elferrat)라고 하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무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대’는 성경에서 물질주의(눅 12:20) 및 경건치 않은 자(시 14:1)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가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은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롬 13:13). 또한 카니발에 참가한 분들이 사순절의 참회와 금식 및 구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퀼른 시민의 절반은 카니발이 싫어 도시를 빠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차라리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기간에 성도들과 함께 근교에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경청할 말씀입니다.

희망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남단에 가면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희망봉(喜望峯, 영어: Cape of Good Hope, 네덜란드어: Kaap de Goede Hoop, 포르투갈어: Cabo da Boa Esperança)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서양 해변에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희망봉이 아프리카의 최남단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최남단 지역은 희망봉에서 동남쪽으로 150 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굴라스 끝(Cape Agulhas)입니다(사진 1, 2).

이 희망봉을 처음 발견한 때는 1488년이었고 발견한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의 탐험가였던 바르톨로뮤 디아스(Bartolomeu Dias)였습니다. 그가 이곳을 지나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처음에는 폭풍의 끝(Cabo Tormentoso)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1497년 포르투갈의 항해가였던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던 중 풍랑을 만나 아사 직전 이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포르투갈 왕 주앙 2세가 희망봉으로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사진 1- 나아공 최남단의 희망봉: 1488년 포르투갈

출신의 탐험가였던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처음 발견하였다.

www.capecoptions.com/cape.jpg



사진 2- 아프리카의 최남단인 아글라스 곳은

희망봉에서 동남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 있다.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b/b7/Agulhas-Map.jpg/220px-Agulhas-Map.jpg



사진 3 -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기 전까지 수많은 배들이 희망봉을 지났을 것이다. 항해하던 사람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희망봉 등대의 불빛을 보며 위로받고 그들의 희망을 새롭게 했을 것이다.

mw2.google.com/mw-panoramio/photos/medium/6927669.jpg

거칠고 풍랑 이는 바다에서 헤매며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선원들은 바다가 인도하는 대로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 희망봉이라는 이름은 유럽과 인도를 잇는 항로 개척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뜻으로 명명되었지만, 선원들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희망봉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漢字)로는 '希望峯'이 아닌 '喜望峯'이라고 쓰는데 그 이유는 이곳 지명이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단순히 'Cape of Hope(희망봉)'가 아니라 'Cape of Good Hope(좋은 희망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곳을 아예 '호망각(好望角)'이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케이프 타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당시에 세운 등대가 있습니다(사진 3). 이제는 대부분의 배들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만 이 운하가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배들이 이 희망봉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멀고먼 대서양을 항해하다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이 희망봉에서 반짝이는 등대의 불빛을 보며 인도로, 아시아로 가는 희망을 새롭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희망봉을 생각하면서 테살로니카후서 2장 13-17 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16-17 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표준 새번역).”

여기서 선한 소망은 good hope, 즉 좋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소망이 좋은 소망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12 절에 보시면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지금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불법의 세력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주님의 약속만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 좋은 소망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망이 좋은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들로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3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처음부터’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즉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신 좋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은 좋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16-17 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영원히 받게 하실 것입니다(계 21:4).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소망을 주신 좋으신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시대의 희망봉이 되어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고, 악어는 입이 긴 반면, 기린은 목이 길고 토끼는 귀가 길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매우 코믹하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앞에서 본 것처럼 매우 재미있게 만드셨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동물들도 사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심해서 지구 전체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주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노아 가족만 구원을 얻는다면 이렇게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9절에 보시면 방주를 다 만든 후 모든 짐승도 수컷 암컷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노아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들도 사랑하시고 궁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예배드릴 때 이 생물들도 함께 조용히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사진 1).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9-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희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짐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무슨 뜻입니까? 노아 언약은 노아 가족과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포함하는 우주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시지요. 결국 이 방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서 다른 피조물들도 이 구원의 축복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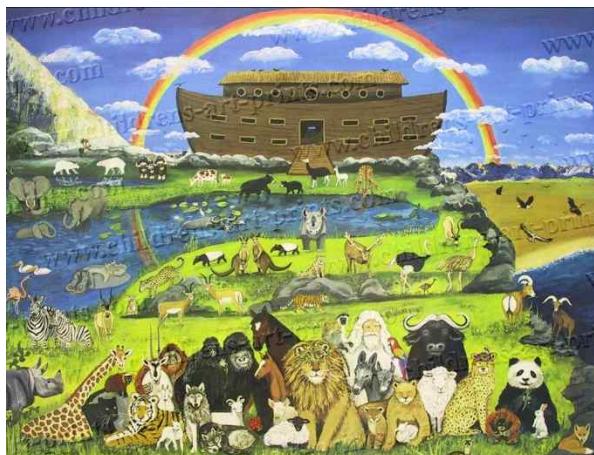


사진 1- 노아 홍수 때 동물도 구원하신 하나님

joyfulpapist.files.wordpress.com/2010/12/b100-noahs-ark.jpg



사진 2- 이사야는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눕고 젖 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다.

www.cognitiones.de/lib/exe/fetch.php/bilder/tiere/edward_hicks_-_peaceable_kingdom.jpg?w=450&h=337



사진 3-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귀하게 여겼던

성 프란시스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lbcblogs.com/wp-content/uploads/2012/10/april_francis.jpg

다윗도 시편 84 편 3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하찮은 미물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렇게 예언했지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곱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자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사 11:6-8, 사진 2).”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 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축들도 아끼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할 때 그곳에 있던 동물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도 동물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벨기에에서 제가 섬긴 교회에 하루는 한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는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예배 시간 내내 조용히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개는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을 돋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봉사견(Service dog)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5 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먼저 4 장 2 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스물네 개가 있는데, 각 보좌에 장로 스물네 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그리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이며 송아지는 집짐승의 대표, 그리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이지요.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물네 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열 두 지파와 신약의 열 두 사도를 대표합니다. 그들도 네 생물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 받은 백성들의 대표들과 모든 생물들의 대표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

프랜시스처럼(사진 3) 동물들도 귀하게 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